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영광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목숨을 가진 사람을 신이라고 하며 왕으로 모시고 주장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과거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침략과 약탈로 피를 흘리게 하였으며, 오늘에 이르러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는 반역의 악행의 만행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사 천능의 주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비로잡아 평화와 자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여호와의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노라 (예레미야 1장 9-10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99호 2012년 9월 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대통령, 독도방문 · 일왕 사과요구는 당연”

### 일본인 목사 일왕에 항의서한...일본고지도도 ‘조선땅’ 증명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며 한일 양국간 외교관계의 큰 이슈로 문제화되고 있다. 양국 관계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일본인교회를 시무중인 한 일본인 목회자가 일본 총리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일본 만행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기독교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옛날 세계지도도 수집하고 있는 한 일본인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증언하기도 해 갈수록 문제는 증폭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며 한국이 같이 제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 참회와 회개다. 그는 “개인뿐 아니라 민족 차원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경구절로 마태복음 5장 23-24절을 꼽았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으킨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란 말씀이다. 요시다 목사는 “일본 국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형제 나라인 한국에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지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한일 양국 교회의 교류·협력력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교류를 희망하는 양국 교회에 중재자로 나섰다. 국내 신학대에 출강하면서 한국인 제자 여럿을 일본 선교사로 키웠다. 31년 전 한국에 함께 왔던 요시다 목사의 큰딸은 숙명여대에서 한국사를 전공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센다이에서 목사 남편의 개척교회 목회를 돕고 있다.

요시다 목사는 “한국과 일본은 국민성은 많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야 할 친구이자 가족”이라며 “나에게 한국은 인생의 절반을 바친 제2의 조국”이라고 말했다.

한기총 반박 성명-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 오히려 외교적 결례이며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 28일 지적했다.

(3면으로 계속)

## “제국주의적 만행 답습...위안부 문제도 사과 해야”

### 1905년 이전 일본지도에선 모두 ‘조선땅’ 으로 표기

일본 총리에 항의 서한 =서울일본인교회 요시다 고조(70) 목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31년째 한국에서 목회 중인 요시다 목사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부르짖어온 ‘일본의 양심’ 중 한명이다.

요시다 목사는 지난 20일 노다 총리 앞으로 보낸 ‘한국인의 분노를 모르는 일본인’이란 제목의 편지에서 “한국 대통령이 한국 섬(독도)에 가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서 “일본이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위안부 소녀들에게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시 최고 책임자의 후계자인 현 일왕에게 한국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의 나라가 저지른 만행과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요시다 목사는 2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언행은 애국적인 것이 아니라 망국적인 행태”라며 “일본 국민뿐 아니라 정부 당국자까지 일제시대 우리의 만행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단히 부끄럽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일본은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요시다 목사는 1977년 수원 제암리교회 순교현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13년간의 일본 목회를 접고 81년 ‘사죄와 화해의 선교사’로 서울에 왔다. 이후 31년 동안 어떤 한국인보다도 열심히 일본의 역사적 잘못을 알리고 일본인들의 회개를 요구하는 데 앞장서왔다. 일본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에는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2005년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관해, 지난해엔 위안부 평화비 철거 요구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다.

요시다 목사가 이끄는 서울일본인교회의 주보에는 한국과 일본 사

이에 십자가가 놓인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는 “가해자 민족과 피해자 민족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그림 밑에 교회의 4가지 목표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본 민족



2면 크리스천여성, 자녀교육에 전적으로 헌신!



3면 “강하고 믿음직하다” 이미지 구축 최선



7면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16면 인터뷰 이웅 장로(멕시코 양곡교회)

## 사 고

### “2013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 광고 9월말 마감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2013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9월말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새롭게 리스팅을 원하거나 주소와 삽입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교회나 선교회, 기독교 단체 및 신학교들은 9월말까지 새 정보를 보내면 된다. 또 광고게제도 9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2013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당목사의 연락처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과 LA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김주경 선교사의

# 성지순례특강 (오픈강의)

제 28회 세계한인 목회자 세미나가 성지 이스라엘에서 2013년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교에서는 성지순례를 앞두고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감당하시고 성지순례의 최고 권위자이신 김주경선교사님을 모시고 “성경의 역사와 지리”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성지순례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무료 세미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강안내: 2012년 9월11일(화)-14일(금)

- 강의주제: 성경의 역사와 지리(이스라엘중심으로)
- 강사: 김주경 선교사 (성지순례의 최고 권위자), (현 영국 암노스선교사역) (GMS 사무총장 역임),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18년 선교사 사역)
- 강의장소: 퀸즈장로교회 양순관
- 강의일시: 9월11일(화), 12일(수), 13일(목), 14일(금)
- 강의시간: 오전9시-오후1시
- 강의료: 무료
- 대상: 목회자, 성지순례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분,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문의처: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Fax.(718)463-7047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장 장영춘 박사 학감 문경환 박사

www.rptse.com



# 시론

## Back to School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긴 여름 방학이 끝나고 일제히 대학 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스테플스(Staples) 등을 다니며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하며 새로운 학기 적응을 위해 분주히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새 학기를 시작한다는 기대감 보다는 방학이 끝났다는 아쉬움 속에 등교 길에 반쯤 낡은 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고 있습니다. 늦잠을 실패 자고, 마음껏 쉬며 편안했던 습관을 벗어나고 다시 학생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학교에 늦지 않게 데려다 주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가정에서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한가했던 출퇴근길이 등하교 때문에 교통 체증을 실감합니다. Back to School이 매년 가져오는 현상들입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모두 각자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쳐 최고의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이며 재미있는 학습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학부형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좋은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학기 초에 있는 오픈 하우스(Open House)에서 자녀들의 학습 현안인 교실을 돌아보고 교사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선생님은 누구일까? 다른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새로운 게임을 소유한 친구는 누구일까? 겨울 방학까지 공휴일은 몇 날이 될까를 생각하며 달력을 들여다봅니다.

자녀들과 학생들만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성령의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하고 쾌락적인 것에 익숙해진 삶의 나태해진 모습을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교장이신 광야의 학교로 돌아가 거룩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1)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튜닝(tuning)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른 마음과 언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plug in 하십시오. 세상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3)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시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선한 우정과 거룩한 소원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사십시오.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 재물과 시간을 동원하여 사랑의 땀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주위는 살맛나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5) 복음을 나누며 사십시오. '영생'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나누어 주위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 아픔, 환난을 능히 극복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거룩한 힘이 있어 온 세상의 이념, 종교, 인종의 벽을 뛰어 넘어 한 가족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학교, 학업, 훈련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밝고 건강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 순간 훈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7-8).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영육을 깨우기 위해,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해, 새로운 비전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주의 뜻을 밝히 깨달아 실행하기 위해서 훈련에 몰입하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훈련을 받으려 하나님의 학교로 돌아가십시오.

가을의 문턱에서 외쳐봅니다. Back to School for the Glory of God!

# 크리스천여성, 자녀교육에 전적으로 헌신!

## 바나리서치, 미국교회 크리스천여성 설문조사 중 두 번째 결과 발표

어머니는 가정의 안팎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한다. 가족 안에서 어머니는 자주 정서적인 나침반, 기획자, 다중작업의 매니저가 된다. 여기에 추가되는 또 다른 기능은 영적인 활력소이다. 아이들을 기르는 여성들은 가장 신앙적이고 영성적이며 적극적인 부류에 속한다고 바나리서치는 새로운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Christian Women Today, Part 2 of 4: A Look at Women's Lifestyle, Priorities, and Time Commi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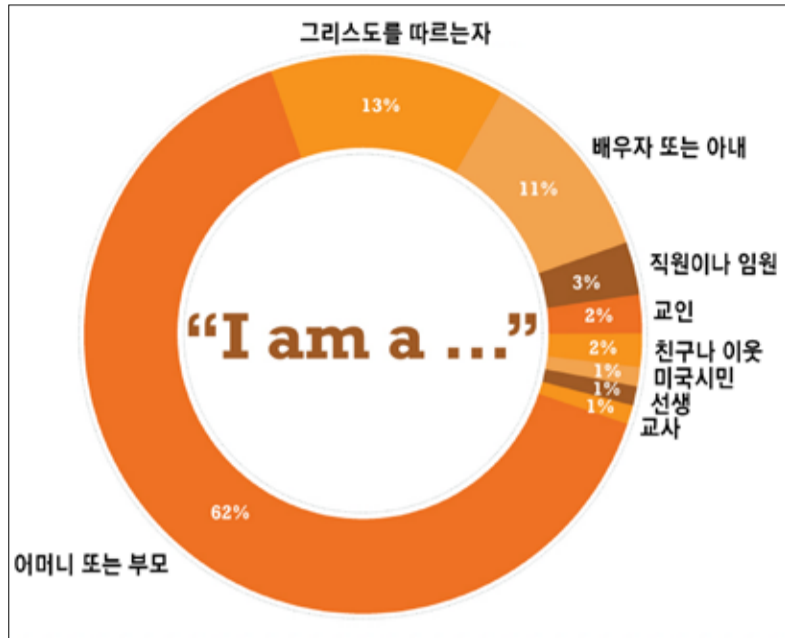
미국교회 크리스천 여성들은 한결같이 가족 지향적이다. 이들은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동시에 여성들 다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강력한 동의를 표한다. 따라서 73%의 여성들이 교회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보다 더욱 성숙되기를 바라고 있다. 36%의 응답자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의 영적 개발에 만족함을 나타내고 있고, 42%는 거의 만족한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23%는 교회에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동 리서치는 설문을 보다 구체화시켜 즉 그렇다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묻는 설문에는, 오직 하나님이 넘는 53%가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자 가족이라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16%가 신앙, 9%가 건강, 5%가 직장 경력 그리고 5%가 안정적인 생활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 여성들의 정체성은 어머니이거나 부모로 정의된다. 62%의 여성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의하는 여성은 13%이고 그리고 '아내'로 불리우기를 원하는 비율은 11%이다.

이외에도, 직장인(3%), 교회 멤버(2%), 친구나 이웃(2%), 그리고 미국 시민, 교사로 1%의 여성들이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존재의 목적이 가족 바라



문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여성들이 신앙적 영향을 받는 대상들은 무엇인가? 75%의 여성들이 성경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51%는 미디어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크리스천 여성들의 면역력이 더욱 강하다. 70%의 여성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미디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크리스천 여성들은 불

## 크리스천여성 정체성은 어머니/부모(53%), 가족이 최우선 신앙적 영향, 성경이 75% 차지...미디어 영향은 5% 불과



1%만의 여성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다시 말해서, 38%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43% 역시 만족할 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17%는 어떤 때는 친밀하고 어떤 때는 멀어지고 있다는 양면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영성 개발과 성숙이 크리스천 여성들의 내적 완성도라면, 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가정이 이들에게 우선순위 중의 우선순위가 된다. 설문에 참가한 여성들 중, 과

교 5%만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고 있을 정도이다. 바나리서치의 데이빗 킨너만은 "크리스천 여성들이 모성애나 자녀 교육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제자 화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건강한 가정만들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분석한다. 결국 교회 지도자들이 부모가 먼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먼저인가?라고 양분해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들로 크리스천 패터닝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또 다른 영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다. 바로 미디어와 친구이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천 여성들은 비크리스천 여성에 비해 미디어나 친구로부터의 영향에서 조금은 자유스럽다. 51%의 비크리스천 여성들이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답하는 것에 비해, 불과 10%만의 크리스천 여성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p><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 수시 입학이 가능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 “강하고 믿음직하다” 이미지 구축 최선

## 미 언론, 27일 개막 공화당 대선후보지명 전당대회 현장보도 평가

27일 플로리다 주 템파에서 개막된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 대회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은 비록 안팎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세계적인 규모로 치러 롬니 후보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에게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 주요 연설자 선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곳곳에 묻어난다. 따라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 자라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전략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전당대회라고 미 언론은 관측하고 있다.

미시간대와 스탠퍼드대의 '미국 선거 연구' 공동조사에 따르면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14%가 전당대회를 보고 후보자를 결정했다. 그만큼 전당대회는 아직까지 유권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0-80년대만 해도 전당대회 기간 동안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는 행사로 치러졌지만 2000년대에 들어선 후부터는 당원들의 축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행사들

능력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롬니 후보의 종교 문제도 정면 돌파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롬니 후보가 몰몬교도라는 사실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몰몬교도는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고 정통 개신교 일각에서는 아직 이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롬니 캠프는 정공법을 택해 롬니 후보의 연설이 끝난 뒤 몰몬교 지도자가



허리케인 비상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당대회를 강행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의 속내에 대한 의문이 미 언론의 관심사이다. 1년 내내

합당은 28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전당대회를 통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로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경

## 롬니, 귀족사업가에서 '준비된' 경제관리인 이미지 부각 종교문제는 몰몬교 지도자 대표기도로 정공법 택할 듯

통해 당원들을 단결시키는 이벤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허리케인 '아이작'의 영향으로 공식 일정은 사흘로 단축됐기는 하지만 지구 최대의 정치 축제가 템파에서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공화당은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대선체제로 공식 전환, 정권 탈환에 나서게 된다. 또 향후 4년 동안 공화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약속인 경강도 이 기간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의 관건은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미트 롬니 후보의 이미지 쇄신으로 강하고 믿음직한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실한 '대통령감'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백악관 탈환을 위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30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되는 롬니 후보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기적인 백만장자 귀족사업가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롬니 캠프는 전당대회에서 최고경영자(CEO) 경력보다는 '준비된' 경제관리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연설문에서부터 비디오까지 일자리 창출과 위기대처



공개 기도를 올리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롬니 캠프는 또 전당기간동안 냉담하고 뻣뻣한, 결을 주지 않는 롬니 후보에 대한 대중 인식을 바꾸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캠프는 롬니 후보가 대선후보직을 받아들이는 수락연설을 하게 될 목요일 무대장치에만 250만 달러를 들여 은화하면서 따뜻하고, 개방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한편 8월이면, 플로리다 주에는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는 플로리다이지만 이때만 되면 카리브 해에서 찾아오는 불청객으로 인해 전 지역이 초긴장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공화당이 8월말 플로리다 전당대회 개최를 강행한 것은 플로리다의 상징성 때문이다.

열대성 폭풍에서 허리케인으로 격상된 '아이작'으로 인해 공화당 전당대회는 첫날인 27일에는 개최 선언만 하고 휴화한다. 그럼에도 공

합주)인 플로리다의 표심을 확보하는 일이다. 플로리다 주에는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9명이 배정돼있다. 캘리포니아(55명)와 텍사스(3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주다.

정치 전문가들은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는 올해 미국 대선의 향방은 결국 경합주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플로리다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에 앞서 2004년에는 공화당에 표를 몰아줬다. 표심이 선거 때마다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2000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대법원까지 가는 길목 끝에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0.01% 포인트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로리다는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등이 적절히 섞여있어 "미국 정치지형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결국 '전세 역전'을 자신하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허리케인 악재를 뛰어넘어 플로리다 표심을 장악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이명박 대통령 '독도발언' 갈수록 증폭

〈1면에서 계속〉

한기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의 행위는 제국주의적 만행을 답습하는 것이며 잘못에 대한 반성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이웃 국가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영토침탈 야욕을 보인다"는 것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폐쇄시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하루 빨리 역사적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더불어 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정부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흔인 위안부 문제와 같이 일본이 무력으로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금이라도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도는 한국땅' 고지도 증거=지난 80년간 일본과 한국의 지도를 비롯한 세계의 고지도를 수집해온 일본인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증언했다.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고지도 수집가 구보이씨(久保井規夫, 70)는 28일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한국 땅으로 표기한 일본 지도를 공개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했기 때문에 부당하며 일본이 지금까지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구보이씨가 공개한 지도는 1880년 일본 내무성이 발간한 '대일본국전도(大日本國全圖)'를 비롯해 일본 문부성이 1886년 검정한 '일본사요(日本史要)', 1887년 편찬된 '신찬지지(新撰地誌)', 1878년 간행된 '일본지리지요략(日本地誌要略)' 등 교과서 5권, 1888년 편찬된 '분방상밀일본지도(分邦詳密日本地圖)', 1901년 문부성이 검정해 간행한 '수정소학 일본지도(修正小學日本地圖)' 등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일본에서 간행된 이 지도들은 이날 독립기념관이 공개한 일본 지도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들 지도는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지 않거나 한국(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1905년 각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강제 편입하기 이전까지는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보이씨는 "1904년 한일의정서로 한국의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위한 재해권 확보 목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강제 편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1905년 이전의 지도 가운데는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한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견해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더라도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지난 24일 독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적어도 17세기 중반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구보이씨는 오사카의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30년 전부터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고지도를 수집하고 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상황화)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 엘에이 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0월 1일(월)-5일(금)  
강의제목: Counseling for Modern Christian Ministers(현대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상담)  
교 수: Dr. Ken Bickel  
장 소: 세계로 비전교회(담임 조요한목사)  
310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연 락 처: 허귀암목사(usa8291@gmail.com, 전화: 714-308-7308)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 한국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16일(금)  
강의제목: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교 수: Dr. Tom Stallter  
장 소: 경남 하동제일교회(담임 오정훈목사)  
- 한국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을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I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 (임마누엘장로교회)

## 모여야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일컫기를 "정신없이 왔다가 정신없이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정신없이 왔다가 정신없이 지나간 여름

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의미 있는 여름을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이 일 저 일에 매달리다가 정말 정신없는 여름을 보내셨는지요? 얼마 전에 입주와 처서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됩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극도로 발달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의 정기적인 모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부대끼며 살기보다는 문명의 이기를 각자 누리며 혼자 살아가기를 즐겨합니다. 혼자 먹고 혼자 돈을 내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게임에 몰두합니다. 친구들이 만나도 대화는 조금 하고 스마트폰에 열중하며, 심지어 한 집대에 누워서도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통화를 하는 부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개인주의의 열풍 속에 아이들은 친구를 왕따 시킴으로써 외로움에 반항하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은 더 깊은 개인주의의 늪에 빠져 들어갑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이 이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족밖에 모르고, 가족 간에도 부부

간, 고부간, 세대간에 담은 높아져만 갑니다.

지난 7월3일 강원도 원주에서 아파트 11층에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메모지에는 "미안하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는 유언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고, 사는 것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그렇게 모질게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세상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극도의 개인주의가 가져오는 외로움의 중병을.

함께 모입니다. 시대의 거센 흐름인 개인주의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시다. 외로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회를 살아

가야 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습관적으로 폐하고 혼자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정말 오늘날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외롭기 때문에 모이는 모이며, 의미 있는 모임은 싫어합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모임입니다. 그곳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실 것입니다(마18:20). 흠어지면 죽습니다. 모여야 삽니다.

# 푸/른/초/장

민철기 목사 (버지니아장로교회)



습니다. 그 자리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 따라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첫째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소홀히 하면 겸손의 자리는 나와 상관없는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인생은 쉽게 교만해 질

절,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요13:34). 그러나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하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는 이런 사랑의 자리를 물랐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분하게 여겼던 다른 제자들도 사랑의 자리를 물랐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사랑의 자리를 알았다면 서로 다른 제자에게 차지하려던 그 자리를 권했을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이 사랑의 자리를 통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것도

고, 결국 나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하면 그 사랑은 이웃과 나를 함께 유익하게 하며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가지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좋은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셋째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섬김의 자리가 정말 좋은 줄을 물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권세를 부리는 자리를 탐냈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는 봉사, 협력, 희생의 자리, 전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요12:26).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시는 자리! 그러기에 정말 좋은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는 늘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접 받고 뽐내는 세상의 좋은 자리는 늘 채워져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야단이지만 정말 좋은 자리, 영원히 좋은 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이 있는 자리, 비어 있는 좋은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꼭 차지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좋은 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 마가복음 10:35-45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다른 제자를 무시했던 두 제자의 실패를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국을 되새기며 겸손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눅18:9-14).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면 높아지고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내려지고 떨어뜨림을 당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좋은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해, 관용, 용서, 친

안입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굉장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실상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지라도 아무 것도 아니며,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고전13:1-3).

내가 사랑이 없으면 결국 나는 아무 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이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탐내는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좋은 자리를 탐냈던 두 제자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수난을 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남겨져서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신 후 오로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세상적으로 영광스럽게 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기 형제를 앉혀 달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 되었는지 그들이 알 것이니라"(40절) 말씀하시므로 두 제자의 소원은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 제자도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를 탐내는 소리를 듣고 분히 여겼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41절)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분을 낸 것을 보면 그들도 역시 두 제자처럼 자리 욕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

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과 야고보가 소원했던 자리를 거절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곧 힘 있다고 자기 맘대로 권세를 부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말아야 한다면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43-4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

자들이 정말 좋은 자리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영원히 좋은 자리

를 차지하는 참 비결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세상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자리로 가는 길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45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좋은 자리는 세상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 부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KPCA) 버지니아 장로교회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겸손으로 동역하실 진심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주요사역 :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정
- 지원자격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로 영어와 한국어 사역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신영간증문, 사역비전 및 계획서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CD 2개 목회자 추천서 2부 (설기던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포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개별 인터뷰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 동지 합니다.)
- 제출기한 : 2012년 9월 30일
- 제출처 : 버지니아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담당 : 서기 백원길 장로, 703-585-6355) Eld. Won Kil Paik 6355 Edsall Rd. Alexandria, VA 22312
- 제출방법 : 우편이나 이메일 wonpaik@hotmail.com
- 교회주소 : 6021 Franconia Rd. Alexandria, VA 22310
- 교회전화 : 703-922-6064

버지니아장로교회 담임목사 민철기

# 담임목사청빙

루이지아나주 슈리포트보조 한인장로교회(PCUSA)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1. 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M.D.M).
2. 목사 안수후 2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는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2. 본인 및 가족소개서
3. 목회 계획서
4. 최근 사무한 교회 3개월이내 주보 1매와 설교 CD 2 회분

### 제출처

1. Shreveport Bossi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1180 Dudley Ln Bossier City, LA 71112 혹은
- 2 (Electronically) sbpc990@gmail.com

### 연락처

- 유효석장로 (318-349-2347)
- 빅형구장로 (318-268-4228)

제출기한: 2012년 10월 6일

## 슈리포트보조 한인장로교회

SHREVEPORT-BOSSIER KOREAN PREBYTERIAN CHURCH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금 발송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호 9월 1일 발행 제173호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한국의 가수 사이가 부른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미 유튜브 조회수 5000만건을 넘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강남스타일 전성시대의 이유와 의미가 무엇일까?

지난 7월 15일 사이라는 가수가 낸 음반6집의 타이틀 곡인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음반 공개와 동시에 음원차트 1위가 되었다. 그 후에 대구스타일, 홍대스타일 등 쏟아지는 패러디 영상들의 홍수를 이루었다. 더 큰 반향의 기폭제는 유튜브였다. 보름 만에 조회수 1천만을 돌파했다.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한다. 최근 전 세계 음악시장의 주류 장르이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질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단순성이 있다. 우리는 찬송가의 4절 5절이나 되는 긴 가사들로 은혜를 받던 시대에 살았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긴 가사에 감동을 받지 못한다. 짧은 가사, 반복되는 가사가 현대인의 감성을 터치한다. 강남스타일은 짧은 7글자 안에서 댄스 리가 반복되며 만들어내는 역동성이 있다. 원발 원발 오른쪽 원발,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코믹한 말춤도 전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했다고 한

성을 도구로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은 이 세대의 문화의 특징이다. 현대인들은 성을 모든 흥행의 도구로 사용한다. 모든 영역에서 성의 어필을 사용한다. 성경원 한국성교육연구소장은 매경이코노미에 기고한 글에서 강남스타일을 성을 공경하는 '성경(性敬)시대'의 상징으로 보았다. 살짝 보이는 게 강남스타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강하게 건드리는 기폭제가 된 듯하다.

물론 강남스타일을 뒤따라 나온 패러디들 가운데서 교회스타일, 예수님스타일, 하나님스타일 등도 나왔다.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강남스타일과 예수님스타일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 것처럼 보인다. 강남스타일은 땅을 향한다. 예수님스타일은 하늘을 향한다. 강남스타일은 먹음직스럽고, 보양적이고, 탐스럽다. 강남스타일은 선악과를 향하고, 죄를 향하는 생활은 사망을 가져다 준다. 예수님 스타일은 생명과를 향하고 영생을 주신다.

대중문화평론가들에게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왜 주목을 받는 거냐?

다. 사람과 명예를 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의 목적도 재미는 아니다. 우리의 고민은 재미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재미 이상의 영원한 기쁨을 주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있다.

인간의 죄성은 늘 우리를 강남스타일로 유혹한다. 화려하게 한번 질러보고 싶은 유혹도 받을 때가 있다. 강남스타일은 중독성이 있다.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 저지르고 싶다. 온 세계가 열광하는 강남스타일의 전성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남스타일을 단죄하고, 외면하고, 끊어 버릴 수는 없다. 이것이 현대의 자화상이고 문화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패락과 화관함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가 이다. 강남스타일의 전성시대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세상은 강남스타일을 추구하고있다. 강남스타일의 이런 인기는 세계가 강남스타일의 가치관에 폭 빠져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강남스타일' 전성시대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강남스타일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세계적으로 뉴스의 핫 토픽이 되었다. 강남스타일에 대한 외신보도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CNN을 위시해서 워싱턴포스트, 타임, LA타임스 등 세계 각국의 유력 신문들의 분석과 소개들이 쏟아졌다. 미국 LA다저스 스타디움에서는 5만 관중이 함께 싸이 강남스타일에 맞추어서 말춤을 추는 단계에 이르렀다. 어른도 아이들도, 인종도, 국가를 초월해서 세계 20여개국에 넘는 나라들에서 자기들의 버전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폭발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유튜브 조회수 신기록 행진도 가슴이 불어 4천만에서 5천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나흘이 걸렸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아이튠즈 뮤직비디오 차트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싸이의 미국 정식 데뷔가 확실시 되었다. 해외진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강남스타일'이 인터넷의 폭발적인 등밀이에 의해서 세계적인 전성시대를 맞았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폭발적 인기의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노래의 장르의 탓으로 돌린다. 소위 '일렉트로닉 팝'이라는 노래 장르이다. 올해 상반기 미국 빌보드 뮤직어워드상을 수상한, LMFAO의 노래와

다. 강남스타일은 기존의 고급스럽고 우아함의 클래식 음악과는 거리가 멀다.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류의 행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세계를 공략하는 기존의 한류의 아이돌 그룹의 고정관념은 예쁘다, 일사불란하다, 세련됐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남스타일은 소위 K팝 음악의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파격적이다.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들은 금지된 한계를 넘는 것을 주저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또한 매우 즐긴다. 강남스타일은 기존의 관념을 깨는 한계를 넘는 파격성을 제공해준다. 대중과 함께라는 발미를 통해서 파격을 즐기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전성시대를 누리는 강남스타일을 보는 마음은 편하지 않은 않다. 누군가가 강남스타일은 "노래의 메시지를 좋게 평가하면 따뜻한 인간미에 요부 같은 기질이 있는 지적 창녀스타일을 흠모하는 노래다"라고 했다. 세상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미지이다. 여기에 말춤이 더해진다. 뮤직 비디오의 남자와 여가수의 눈빛과 포즈는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선정적이고 키치적(kitsch)이라 할 수 있는 현대의 트랜드마크 담고 있다.

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독특하다. 재미있다.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보았다고 생각한다.

현대인은 독특함을 추구한다. 평범함이 아닌 돌출되어져 나오는 것을 원하고 즐긴다. 명문대학에 가려면 이런 독특함과 보통과 다른 무엇을 요구한다. 평범함에 질식하는 세대이다. 그래서 좋은 방향에서든지, 아니면 나쁜 방향에서 이든지 독특함을 추구한다. 알려지고 싶은 욕망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튀고 싶다.

재미가 현대의 가치이다. 인기至上주의가 현대인의 지향점이다. 언젠가 "재미있는 지옥, 재미없는 천국"이라는 글 제목을 본 적이 있다. 세상은 재미를 추구한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는 말초신경의 자극도, 잡재의식도, 그 어느 한계도 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 조사에 따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예수님이 재미없으셨던 분은 결코 아니다. 예수님은 유머와 재치가 넘치셨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재미가 목적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재미 대신에 도리어 기쁨 즉 희락을 주신다. 우리도 재미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재미있는 사역과 재미있는 설교는 인기는 얻을 수 있을 것이

강남스타일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가 생긴다. 강남스타일에 재미를 느끼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열광하면 얼마나 좋을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스타일에 의하여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면서 예수님 스타일에 중독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스타일 때문에 영생을 얻고 자기 생명을 걸고 파격적인 헌신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한다. 세계를 휩쓸었던 태권도 열풍도, 한류의 바람도,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포함한 한국산 상품들의 높은 세계 점유율도, 그리고 심지어는 강남스타일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일이라 믿는다.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 한국과 세계에 흩어진 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한 또 다른 준비 작업은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온 세계에 예수님스타일 시대를 여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본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저는 요즘 교회를 옮겨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함께 중창팀에서 같이 찬양하며 친했던 친구와 사소한 감정문제로 틀어지면 이제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 졌습니다. 그 친구를 보지 않기 위해 1부예배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바꾸었고 이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결국은 교회를 옮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이 집사

**A:**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입니다. 대개가 죽고 못 살던 너무나 가까웠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나 감정표현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과거 신학교 시절에 목회학 시간에 목사님과 교인은 난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멀어지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데기 쉽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늘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도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늘 배신당하기 쉽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옆에 빅토리아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의 부처스 가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곳 정원은 시도 때도 없이 자라나는 민들레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잔디를 아름답게 가꾸어도 비가 한번 쏟아지면 민들레가 엄청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정원은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민들레를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 민들레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그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 방법 밖에 없군요. 그것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후 부처 가든에는 "민들레 정원"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 민들레 정원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사랑받는 구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 내가 먼저 화해의 손 내밀어보도록

"애기 힘들면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정원이가 민들레를 싫어한 것처럼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저런 사람은 만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은 없었으면 하며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라는 것이 꼭 수학공식처럼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할 수 없거든 차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짐사담, 과거에 그렇게 친밀했는데 어떤 일로 멀어졌다면 피하여 교회를 떠나기보다 내 편에서 먼저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실천적 행동이 아닐까요?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피하면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어느 선비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서 불평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방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방을 들은 옆에 있던 선비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어둠을 불평하지 말게나. 자네가 방에 촛불을 켜놓으면 환해질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웃이나 교회가 사랑이 없어 어둡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편에서 사랑의 불을 켜십시오.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사랑으로 점점 밝아지기 시작 할 것입니다. 사랑도 내가 먼저 하고 인사가 내가 먼저 하고 용서도 내가 먼저 하십시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느 민족보다 자존심이 강하고 양반기질이 있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번 틀어지면 풀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화해와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는 그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신사의 품격"입니다.

JoyLA.com

**추제별성서대전**

**80% OFF**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750.00~~  
**\$150.00**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스트롱 원어코드

**NEW 성구사전**  
개역개정판

360,000절이 수록된 혁신적인 성구사전  
스트롱 코드 번호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원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

New Bible Strong's Concordance

로고스 STRONG COD

**히브리어·헬라이어 사전**

HEBREW-GREEK  
DICTIONARY  
개역개정판

로고스 **NEW 성경사전**

LOGOS BIBLE DICTIONARY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히브리어, 헬리어를 접하면, 원어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함  
어려운 단어를 구별하며 대조하여 명기함, 단어에 스트롱코드를 붙여 활용도를 높임  
단어에 현재와 영어를 명시하여 이해를 도움

조이기독백화점 |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볼로벤(BoLOVEN)**



볼로벤족은 라오스 남서부의 기름진 고원지대에 거주한다. 이 고원은 해발 약 3,500피트에 위치하며 한때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 그러나 내전, 뒤쳐진 교통, 농작물 질병 등으로 인해 커피, 면화, 담배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들의 조상은 9-13세기에 흥왕했던 대 크메르제국으로 번성기

의 크메르 제국은 현재의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일부를 포함하는 대 제국이었으나, 타이족과 베트남인들의 침입 후에 쇠퇴했다. 앙코르로 알려진 캄보디아왕국의 중심은 볼로벤 지역에 위치했으며, 현재에도 8-12세기 유물과 유적의 옛터들이 있다. 근래에 라오스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이 라오스를 놓고 정치적으로 경쟁해왔다. 특별히 볼로벤족은 라오족, 중국인 상인들, 유럽 식민지들과 접촉했던 까닭에 다른 종족들을 잘

알고 지낸다.

**삶의 모습**

볼로벤족은 농업기술을 통해 라오스에서 다른 종족들과 무역관계를 형성하게 한 흥미로운 경제적 네트워크를 발달시켰다. 이들은 아이리시 감자를 재배했는데, 이 감자는 라오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였던 때에 프랑스에 의해 소개됐다. 그 후로 감자는 중요한 농작물로 발전했고 볼로벤족은 유럽인들과 중국인들을 포함하는 무역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됐다. 이제는 다른 종족들이 볼로벤족을 위해 일하고 생산물이 중국 상인에게 판매된다. 이들은 또한 쌀, 옥수수, 후추, 양(말), 야채 등을 재배한다. 수출을 위해 카르다뎀(cardamom), 계피 등과 같은 향료도 재배한다.

볼로벤족은 이 지역의 다른 종족

들과 달리 직조나 금속공예 등은 하지 않으며 목공예에 뛰어난 재능을 나타낸다. 또한 볼로벤 고원에는 조각할 때 사용하는 돌인 '파고 디트(Pagodite)'가 매장돼 있다고 한다.

이들은 남서 몬순 궤도상에 거주하고 있으며, 강수량이 160인치(4,000mm) 이상으로 라오스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볼로벤 마을은 일반적으로 작으며 가족은 직사각형 대밭 위에 고상식으로 집을 지어 층계를 통해 출입한다. 가족의 수입에 따라 짚이나 나무벽, 기와지붕, 대나무나 나무마루로 이루어진 집에서 생활한다. 각 가족에는 야채와 풀을 키우는 부엌정원이 따로 있다.

마을은 볼로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단위로 각 마을에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수장이 있다. 볼로벤족 사람들이 라오

스의 국민들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활동하는 특별한 정치적 대표자는 없다. 가족의 지도권은 가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이 갖는다.

볼로벤족은 약간 독특한 결혼관습을 가지고 있다. 결혼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동의해야만 한다. 초혼의 경우에는 신부비(brid price), 노동(brid service), 혼인장금 등 없다. 재혼의 경우에는 신랑은 두 번째 부인의 부모에게 신부비를 지불해야 한다. 마을의 수장은 결혼식을 주례하며 결혼의식을 공인하는 서류를 만들어 준다.

**신앙**

볼로벤 사회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종교적 의식에 조상숭배와 정령숭배 같은 전통민족종교의 모습을 많이 갖는다.

또한 조상들의 영혼이 자신들의 생활에 여전히 관계되며 개입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의 영혼들을 돌보고 먹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강, 숲, 산, 나무와 같은 자연 대상들의 영혼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무암 토질의 볼로벤 고원에는 다량의 광석이 매장돼 있다. 볼로벤 고원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나 잠재력과 가망성은 매우 높다. 고원에서 수력발전이 가능하고 알루미늄 광석이 나가는 하나 철도가 없고 도로망이 엉망인 것이 주된 장애가 된다. 불충분한 자원, 부족한 인력, 부적당한 지식과 기술이 라오스 정부가 개발정책을 시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대선후보들, 신앙관 인터뷰서 한목소리**

미국 성공회 워싱턴 대성당이 발행하는 주간지 '커시드럴 에이지'가 지난 21일 오후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오바마와 롬니 후보의 신앙관에 관한 서면 인터뷰를 보도했다. 두 후보는 인터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지탱하고 이끌어왔으며, 신앙은 미국의 공공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후보가 종교 관련 인터뷰를 꺼려온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인터뷰다. 워싱턴 대성당은 로널드 레이건 등 역대 미 대통령 상당수의 취임 기도회가 열린 영적인 중심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매일 내 삶을 이끌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게 안도감과 균형감을 준다"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식처럼 사랑할 것을 늘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여전히 그의 종교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진짜임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내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현지 여론조사에선 공화당 유권자의 30%가 오바마 대통령을 무슬림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좋아하는 성경구절로 이사야 40장 31절(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담음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과 시편 46편을 꼽았다. 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마음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를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롬니 후보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종교명(로몬)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세주임을 믿는다"고 말해 종교적 이질감을 희석시키려 애썼다. 그는 정치지도자의 신앙에 관한 질문에 "교파와 상관없이 인류 평등, 타인에 대한 봉사, 자유를 향한 헌신과 같은 미국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교회와 국가의 경계는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기독교 단체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과 차이를 보였다.

**기독교 개종한 이란인 목사, 내달 재판 속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고 3년간 투옥됐던 이란인 유세프 나다르카니(32) 목사가 다음 달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미국 폭스뉴스가 22일 보도했다.



기독교 신앙을 철회할 것을 거부해 사형 선고를 받은 나다르카니 목사 사건이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최근 이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이번 공판이 그러나 이슬람 배교(背敎) 혐의에 관한 것인지, 새로 추가된 혐의 때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지난 2009년 아들의 학교에서 코란 수업이 의무 과목인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됐고, 이란 법원은 정확한 죄목 없이 그가 이슬람교 신념을 저버렸다고 기소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나다르카니 목사가 성폭행, 강탈,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이란의 한 외교관은 유엔 위원회에 나다르카니 목사는 처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폭스뉴스의 한 소식통은 "이란 내에서 배교자에 대한 처형은 공자 없이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나다르카니 목사의 구명 운동을 펴고 있는 '미국의 법과 정의센터(ACLU)'는 그의 석방을 위해 미국 국무부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 미국 하원도 그의 투옥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고 전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사 총상으로 소천**

CMI선교단체에서 파송 받아 도미니카 공화국내에서 빈곤층을 이루며 차별받는 아이티인들을 상대로 15년간 사역



해 오던 이성철 선교사가 총격을 받아 8월 26일 오전에 치료 중 소천했다고 미션매거진이 선교지 소식을 인용 보도했다.

이성철 선교사는 자비방 선교사로 서점을 운영하면서 아이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며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가는 일들을 감당해왔다.

"어제 설모임 인도 후, 두 아들(영성 9세, 영광7세)과 함께 귀가 하던 중, 이곳 시간으로 저녁 9시 산티아고 인근 바랑기파 지역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지시간 11시 수술시작, 지금(AM 1:30)까지 수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O형 피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어린 두 자녀가 전부 목격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사모님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경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부탁 드립니다"라는 도미니카 공화국 윤석진 선교사의 편지를 인용했다.

이 선교사는 병원 수술 후 결과가 안 좋아서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남은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CT, 장재형 목사 재림주 의혹 보도**

[CBS]크리스천투데이 투데이(www.christianitytoday.com)가 한국에서 이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장재형 목사의 재림주 관련 기사를 실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재림주의혹은 장 씨가 만든 단체에서 탈퇴한 미국과 중국, 홍콩 등 각 나라 회원들의 복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신임회원 교육 과정에서 장 씨를 재림주로 고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최근엔 장 씨가 재림주라는 교리를 공식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2천년대 중반에 탈퇴한 중국 상하이의 모 회원은 신임회원 가입 때부터 장재형이 재림주라는 말을 전했다고 폭로했다. 이 기사는 이어 장 씨가 1992년 미국의 올리벳 대학교를 설립한 데 이어 2천년부터는 미국의 크리스천포스트, 가스펠헤럴드, 인터내셔널비즈니스타임즈, IBT 등 다수의 인터넷 언론들과 예수청년회(예청)라는 선교단체 등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넓혀왔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2005년 경제적 기여를 명분으로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접근한 뒤 장 목사와 관계된 단체들은 WEA 회원으로 연결해 활동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란 가운데 남침례교 신학대학원의 총장 등 미국교회의 유력 지도자들이 장 목사가 관여하고 있는 단체나 기

관에 자원역할을 맡고 있으며, 중국의 토마스 왕 목사도 장 씨가 만든 언론사의 자문역을 맡았다가 사퇴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또 장 씨가 문선명의 통일교 출신이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네 번의 조사를 통해 이단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결국 이로 인해 20여개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퇴해 한국교회연합(한교연, CCIK)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005년 장 씨의 이단 혐의 재조사에 참여했던 박형택 목사(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소장)는 "장 씨는 해외에서도 영향력이 크다"면서 "우려와 경계의 위험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장 목사는 통일교의 핵심 간부로 일한 점이 명백하다"며 그 예로 선문대 교수와 신촌학사장, 순회전도단 단장, 금산지부장 등 과거 장 목사가 통일교에 몸담으면서 활동했던 직책을 거론했다. 박 목사는 또 "장 목사가 1997년 예장 국제합동복음증 장성로 목사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2년 기독교 감리회복음증 교단에서 목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 목사안수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짐바브웨를 향한 기독교 의료인들의 사랑**

[CBS]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서민들은 의사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쉽지 않다. 비싼 의료비도 문제지만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무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다.



지난 16일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무도라상가' 병원.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줄이 이어졌다. 문 앞은 진료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다닥다닥 붙어 끼어들 틈조차 없다. 한 긴장한 사내가 밀려들어오는 사람들을 몸으로 막아보지만 힘에 부쳐 보인다. 한국에서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은 마을로 삼시간에 퍼져 병원은 진료사작 몇 시간 전부터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6명의 한국인 의사들이 이날 하루 진료한 환자는 무려 1천여 명. 간호사들과 자원봉사자 등을 합하면 10여 명의 한국인이 그 많은 환자들을 감당하고 있다. 위험할 뻔 했던 산모는 한국인 의료진 덕분에 안전하게 새 생명을 낳았고, 입 안에 난 종양이 타져 피를 흘리던 환자는 위기상황을 넘겼다. 하지만, 세 군데로 나뉜 구순 구개열 환자 아가처럼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례도 많아 의료진들을 안타깝게 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안내**

<p><b>뉴욕셋째마녀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뉴욕목양장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뉴욕빌라벨비아장교회</b> 담임목사: 김택원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철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뉴욕순복음안다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계원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뉴욕효신장교회</b>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국 1부일예배: 오전 7:15 2부일예배: 오전 8:30 3부일예배: 오전 10:15 4부일예배: 오전 12:00 5부일예배: 오후 1:30 6부일예배: 오후 7:30 7부일예배: 오후 8:30 새가족: 새벽 8:00(월-토)</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메디니교회</b> 담임목사: 장동환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어린양교회</b>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유니온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박계열 1부 기도회: 오전 8:00 2부 기도회: 오전 8:30 3부 기도회: 오전 10:45 4부 기도회: 오전 2:30 5부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오후 8:30</p>
<p><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근 주일예배: 오전 12:30 새가족: 오전 6:3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중부뉴저지장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p>	<p><b>윈즈장교회</b>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p>	<p><b>윈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p>	<p><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재이름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p><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b></p>	<p><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박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종원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브라질 새사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7:00</p>	<p><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병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p><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병관 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신도회: 오후 8:30 새가족: 오후 8:30</p>



#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연안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정현 목사 | 나성서부교회

##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상)

“로베레 장군”이란 작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치에 저항하던 레지스탕스들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저항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그들 중에 끼어 사형을 받게 되자 억울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결코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다. (아무) 것도 안했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 한단 말인가? 그 때 옆에 있던 한 저항가가 말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그것이 바로 너의 큰 죄이다. 전쟁이 5년이든 계속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는 파괴되고 조국은 멸망직전에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너는 그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다.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수수방관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큰 죄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그저 방관자가 아니라 기울어져 가는 미국의 현 상황을

바로 알고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현재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 인본주의의 총체적인 나라로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에는 외국 화폐들이 흉내도 내기 힘든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어입니다. 자본주의의 왕국인 미국에서 돈에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공서에서 십계명이 철폐되고 학교에서는 기도가 금지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젠 거의 Happy Holiday로 바뀌어 지고 있고 동성애와 동성 결혼법이 점점 힘을 실어가는

이때에 지폐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아직도 150년 이상 존속하고 있어 신기할 정도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미국은 현재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미디어에서 빼려는 무신론과 기독교 유신론의 치열한 영적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모든 달러 지폐와 동전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모토를 삭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무신론자들을 중심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너무 종교적이어서 수정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1970년 첫 소송이 제기된 후 1984년, 2005년, 2009년 등에 도

풀이 되었지만 그 때마다 법원은 “이 모토가 정부의 특정종교 옹립과 무관한 애국적 또는 의식적 용도”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월 연방하원은 이 모토가 미국의 공식표어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39대 9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키고 전국 각급 학교와 관공서에 이 모토를 공식하도록 권장기로 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이미 2006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In God We Trust”는 1956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공식표어로 채택한 후 1957년부터 10년간 각종 지폐에 인쇄되었습니다(윤여춘의 한국일보 오피니언 참조). 그렇지만 이 모토가 처음 2센트짜리 동전에 삽입된 것은 그보다 거의 100년 전인 1864년 링컨 행정부 때였습니다. 당시 재무장관 새먼 체이스는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피폐해지자 “하나님의 힘이 강한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가호 없이 안전한 나라가 없다”면서 이 모토를 동전에 삽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세운 이 미국은 짧은 역

여기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는 인본주의 운동과 반 기독교적인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현 오바마 대통령이나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자카르타와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에 미국의 표어는 “우리는 하나(Out of Many, one)”라고 의도적으로 잘못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포브스 의원과 연방정부가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가 모토인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어를 의도적으로 잘못 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2009년과 2011년 이집트 카이로에 갔을 때 그는 무슬림과의 친분과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왔으면서 오바마는 카이로에서 더 이상 미국은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라고 연설함으로써 미국 기독교인들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역사상 최초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더 이상 이슬람을 우호국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11테러 사건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죽었는데도 뉴욕 월드

화센터 세우고자 계속 서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과거보다 두 배나 늘었으며 이슬람은 그들의 샤리아 법을 미국에서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샤리아 법안은 종교편파, 세계평화를 위장해 미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슬람교도들에게 그렇게 테러를 당하고도 미국과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2011년 9월11일 10년째 되는 9.11기념행사에는 많은 정치인 사회인사, 경찰, 소방서와 함께 9.11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로부터 기독교 리더들은 한명도 초청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9.11테러를 당한 가족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기도순서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5월 첫 목요일이면 목사와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National Day of Prayer”(국가 기도의 날)의 국가 기도모임은 폐지되었고 대신 6월 달은 LGBT Pride Month(동성애를 응원하는 달)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하여 그들을 추켜올리며 파티를 열어주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위를 벌였습니다. 그는 2012년 2월24일에 동성애 옹호론을 펼치면서 이미 헌법이 된 DOMA 법안(Defence of marriage act, 남녀 간의 정상적인 결혼보호법)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할 수 없기에 그것은 위헌(Unconstitutional)이라고 하며 반대 운동(Repeal)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 할 일도 많고 대통령은 공인인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비도덕적인 것을 공공연하게 찬성하며 그의 힘을 집중하는 행태를 볼 때 미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린이가 절벽을 향하여 나비를 잡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과 같아서 미국의 미래가 불안하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미국 공식표어 ‘하나님을 믿는다’ 아직 지폐에 존속 낙태, 동성연애, 동성결혼, 인권 차원으로 이해 용납

미국은 현재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미디어에서 빼려는 무신론과 기독교 유신론의 치열한 영적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모든 달러 지폐와 동전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모토를 삭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무신론자들을 중심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너무 종교적이어서 수정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1970년 첫 소송이 제기된 후 1984년, 2005년, 2009년 등에 도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화요일예배: 오후 7:30 www.goshanchurch.com</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권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3:00(영양) 목회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영양)</p>	<p><b>나성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2:30 목회기도회: 오후 7:30</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박희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목회기도회: 오후 7:30(영양) 세례기도: 오후 9:30(영양)</p>	<p><b>나성서부교회</b> 담임목사: 이경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목회기도회: 오후 6:45(영양) 목회기도: 오후 8:00(영양)</p>	<p><b>나침안교회</b> 담임목사: 민경명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목회기도: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b>남가주성서교회</b>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목회기도: 오후 8:00(영양)</p>	<p><b>남가주리디아교회</b>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회기도: 오전 8:00(영양)</p>	<p><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b>다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회: 오후 8:00</p>	<p><b>동문교회</b> 담임목사: 최태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전 9:30 목회기도: 오후 7:45</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 Diaspora Minist. Center 대표: 권영국 목사 “세계사이에 걸쳐 있는 우리와 함께 사랑의 연대 기도” 목회기도회: 오전 8:00 목회기도: 오후 8:00</p>	<p><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철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목회기도회: 오전 11:30 목회기도: 오후 7:30</p>
<p><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심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목회기도: 오후 8:00(영양)</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8:00(영양)</p>	<p><b>미주 평안교회</b> 담임목사: 송경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목회기도: 오전 11:45 목회기도: 오후 8:00</p>	<p><b>매델린인교회</b> 담임목사: 손연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영양) 목회기도회: 오전 11:30 목회기도: 오후 7:30</p>	<p><b>민주비버리칼리포르니아교회</b>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8:00(영양)</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 오전 11:30 목회기도: 오후 7:30</p>	<p><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장성경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목회기도: 오전 8:00</p>
<p><b>세계미전 교회</b> 담임목사: 김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9: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9:30(영양)</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8:00(영양)</p>	<p><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용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45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8:00 목회기도: 오후 9:30</p>	<p><b>얼마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현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목회기도: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8:30(영양)</p>	<p><b>오렌지카운티계정장로교회</b> 담임목사: 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0:30 목회기도: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8:30(영양)</p>	<p><b>요즘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8:30</p>	<p><b>원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8:30(영양) 목회기도: 오전 11:00 목회기도: 오후 8:3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8:00(영양)</p>	<p><b>인랜드교회</b> 담임목사: 박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8:00(영양)</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권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8:00(영양)</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 오후 7:30</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 오전 8:00(영양)</p>	<p><b>토크슨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영양) 목회기도: 오후 8:0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하는 후원교회들입니다 L.A.: Tel: 323-995-0000 N.Y.: Tel: 718-888-4400 Fax: 718-888-0074 세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03. 질소와 산소

공기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사람이 숨 쉬는데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산소가 아니다. 질소가 무려 7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산소(21%)이다. 두 기체를 합하면 공기의 99%를 차지한다. 내핵성인 수성의 대기 성분은 칼륨(32%)이나 나트륨(25%)이 주 성분이고, 금성은 이산화탄소(96%)가 대부분이고 약간의 질소(3%)가 있다. 외핵성인 화성도 금성과 비슷하게 이산화탄소(95%)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질소(3%)를 차지하고 있다. 크기가 지구보다 무척 큰 목성의 경우 수소(60%), 헬륨(36%) 그리고 네온(3%)순이다. 어디를 둘러 봐도 지구와 비슷한 비율의 기체 성분을 가진 행성이 없다. 왜 지구에는 질소와 산소가 그렇게 많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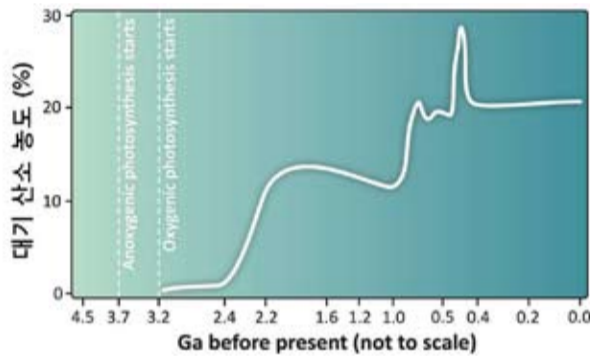
### 1. 기원과학의 문제

사람의 기록이 없었던 과거에 대해 왜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등 많은 궁금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과학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 현재 자연과학의 특징은 현재 관찰이 가능한 것, 현재 실험이 가능한 것, 그리고 그 실험결과들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기체가 왜 그리고 어떻게 질소 78%와 산소 21%로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역시 자연과학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물론 물질적인 것에 관한 질문이므로 자연과학을 통해 어느 정도 탐구 가능성이 있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확인과 확신은 불가능하다. 이런 류의 시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나 활동을 기원과학 혹은 역사과학이라 부른다. 이런 류의 지식은 사실을 다루는 자연과학과 구별하여 교육하고 배워야 한다.

기원과학을 하는 때는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가정 혹은 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정은 창조자의 존재유무에 관한 것이다.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귀결되는 가정이 역사는 지금과 같은 규모와

속도로 계속해서 변해왔다는 동일과정설(Uniformitarianism)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그 위에 진화론이 들어설게 된다. 반대로 창조자를 인정하면 시작은 현재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규모와 속도가 아니라 급격한 대규모의 변화를 수반했음을 인정하게 된다. 창조과학은 엄청난 기적인 창조에서 시작한 성경의 역사를 사실상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 물

## 대기는 창조 2일째 현재 구성비율(질소78%, 산소21%, 기타1%)로 창조 창조시 산소가 있었던 없었던 생명체가 저절로 생겼다는 주장은 비과학적



진화론적 지구 대기의 산소

이런 설명은 증명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는 진화론적인 상상이다. Ga는 10억년

질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취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자인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요3:11-12).

### 2. 질소와 산소의 기원

왜 지구에는 질소와 산소가 그렇게 많은가? 지구의 나이를 46억년으로 믿는 과학자들은 제대로 된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실제로 있었다면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싶어한다. 그 설명은 당연히 진화론의 믿음에 입각한 것이다. 맨 처음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났던 38억년 이전에는 대기가 산소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산소가 지금처럼 21%를 차지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산화되어 생명체의 부패가 저절로 만들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예수님의 증언인 성경을 통해 보면 지구는 사람이 살게 하려고 창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빛이며 공기며 식물과 동물들이 순서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나서야 창조의 목적인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한다. 대기는 창조 2일째 공칭이 생겨날 때 현재와 같은 구성비율(질소 78%, 산소 21%, 기타 1%)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대기가 먼저 창조되고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를 이용하게 될 식물들은 3일째, 동물들은 5일과 6일째 창조하신 것이다. 대기의 성분을 생각해보더라도 성경의 창조과정의 비범이나 진화론보다 훨씬 논리직임을 알 수 있다.

### 3. 질소와 산소의 역할

왜 지구에는 질소와 산소가 그렇

게도 많을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피조물들마다 아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것들이 창조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요1:3; 골1:16). 질소78%와 산소21%도 역시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부터 비로소 과학자의 지성이 필요할 것이기 이전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방법 자체에 대해서 과학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식물들이 자라는 데 3가지 필수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들(질소, 인산, 칼륨) 중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질소다. 식물은 모든 동물과 사람이 먹고 살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산소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가 필요할 것인 것은 아주 논리적인 귀결이다. 미국 서부 사막지대인 남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잔디에 물을 줘야 한다. 그러나 비가 내릴 경우에는 수돗물을 주었을 때보다 훨씬 아름답고 무성한 초록빛 잔디를 보게 된다. 공기 중에 있던 질소가 빗방울에 스며들고

땅에 내려오면 미생물에 의해 암모니아로 변하여 식물에게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산소는 쉽게 불이 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산화시키는 독성물질이다. 그러나 독성물질도 잘 다루면 사람에게 이롭게 되듯이 산소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생명체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된다. 산소는 처음부터 많이 있었으므로 생명체들은 산소를 기피하는 혐기성 세균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산소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그 비율이 질소78%와 산소21%였을 것이다.

진화론으로 세뇌된 우리들에게 언뜻 보면 창조과정은 과학(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현재의 법칙)인 열역학 제1법칙)을 통해 생각해보면 창조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잘 살펴보면 과학은 성경과 전혀 부딪히지도 않는다. 성경과 부딪히는 것은 과학(사실)이 아니라 진화론으로 세뇌된 세계관일 뿐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요8:38). 그러므로 학교나(심지어 신학교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사람에게 배운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통해 진리인 성경을 해석하려는 노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메일: mailforwsc@hotmail.com

# 성품칼럼 (38)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성품리더십(6)-배려의 리더십

1929년 하버드 윌리엄 하인리히(H. W. Heinrich)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보며 사고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5만 건의 사건 사고를 분석한 결과 큰 사고는 우연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혔지요. 이듬해 큰 재해 1건이 발생할 때, 이전에 동일한 원인에 의해 작은 재해가 29건 발생하고 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300건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인리히의 연구결과는 큰 재해가 바로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듯 저지르는 행동들이 나중에는 서운한 감정과 감정을 수 없이 상처로 발전하여 관계의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소하게 배웠던 작은 친절이 큰 행운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일대일 배려를 통해 사전에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고 방지해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작은 행동도 섬세하게 관찰하고 대응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란 무엇일까요?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피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배려는 리더십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공감과 영향력을 끌어내기에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스타벅스의 CEO였던 짐 넬슨은 매일 아침 지역의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대표의 전화를 받은 한 매니저는 “진짜로 짐이 맞나요?”라고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려의 리더십은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손이 뜨겁지 않도록 컵에 끼워주는 ‘슬리브’를 덧붙여 고객들을 감동시키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고객의 커피 한잔에 섬세한 배려를 실천한 결과들이 모여 오늘의 스타벅스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라고 개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리더를 따르고 공감을 형성합니다. 행복하게 성공한 리더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배려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잘 관찰합니다. 갖고 있는 부담이나 갖지 못한 부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잠깐 서로 지남 때도 격려를 잊지 않습니다. 기쁘게 인사하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며 관심을 표현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배려를 실천합니다. 일대일의 개별미팅과 소수로 진행하는 회의를 통해 공감의 집중력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배려의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자가 만든 배려의 법칙을 활용해 보세요. 거창할 것 같지만 간단하고 소박한 방법입니다. 위대한 것은 단순함과 소박함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려의 법칙이란 “내가 만약 \_\_\_에게 \_\_\_ 해주면 기뻐하겠지?”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이 큰 오해를 부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반복되면 버릇이 되고, 버릇은 습관이 되어 결국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바로 나의 운명이 되지요. 성품까지는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성품은 운명이 되어 다시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보여주는 작은 배려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어 기억 됩니다.

<p><b>세계로 넘어가는 교회</b> <b>기타지역 교회안내</b></p>								<p><b>갈보리산로교회</b> 담임목사: 조봉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가족도: 오전 9:00(월-목) TL: (703)479-7070, Fax: (703)687-6191 9004 H. Deenot Ave, Ste. Lee Vegas, NV 89449</p>	<p><b>남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성길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일예배: 오전 11:00 새가족도: 오후 7:30 새가족도: 오후 9:00(월-목) 주일학교: 오후 11:00 TL: (704)847-6821, Fax: (704)847-6826 4415 E. 5th St, Charlotte, NC 28270</p>
<p><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 유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전 10:00(월-목) 새가족도: 오후 7:00 TL: (303)427-8365, Fax: (303)427-8943 7750 Kipling St, Aurora, CO 80016</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예배: 오전 8:30 수일예배: 오전 11:00 새가족도: 오후 7:30 새가족도: 오후 9:00 TL: (919)272-0881, Fax: (919)272-9777 2290 Morris Ave, Lenoir, NC 28648</p>	<p><b>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광윤 주일예배: 오전 8:30(월-목) 수일예배: 오전 11:00(월-목) 새가족도: 오후 7:30 새가족도: 오후 9:00 TL: (716)646-1932, Fax: (716)646-3796 1250 Woodbine Rd, Lehigh, PA 18027</p>	<p><b>원일교회</b> 담임목사: 정복재 주일예배: 오전 7:00 수일예배: 오전 11:30 새가족도: 오전 11:45 새가족도: 오후 8:00 TL: (415)227-2226, Fax: (415)227-6223 2138 St. Johns Lane, Liberty, MO 21542</p>	<p><b>보스완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전 11:30 새가족도: 오전 11:30 새가족도: 오후 7:30 TL: (807)344-4878, Fax: (807)344-4879 7 Mill St, Myrtle, SC 29577</p>	<p><b>볼티모어교회</b>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예배: 오전 10:00 수일예배: 오전 11:30 새가족도: 오후 7:30 TL: (410)527-3443, Fax: (410)527-3443 7000 Sandburn Ave, Balt, MD 21233</p>	<p><b>살럼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예배: 오전 9:00 수일예배: 오전 10:15 새가족도: 오전 9:00 새가족도: 오후 7:30 TL: (704)242-0900, Fax: (704)242-0900 701 Seaboard Ave, Charlotte, NC 28206</p>			
<p><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예배: 오전 8:30 수일예배: 오전 10:00(월-목) 새가족도: 오후 7:30 TL: (704)429-2581 8007 Pecan Ave, W. Palm Beach, FL 33418</p>	<p><b>시애틀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범 주일예배: 오전 11:15 수일예배: 오전 7:30 새가족도: 오후 7:30 새가족도: 오후 9:00 TL: (206)327-2811, Fax: (206)327-2746 4043 E. 8th St, Seattle, WA 98115</p>	<p><b>시카고에브레교회</b>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예배: 오전 7:00 수일예배: 오전 8:00 새가족도: 오전 11:00 새가족도: 오후 8:00 TL: (847)394-8434, Fax: (847)384-8279 877 Schoenck Rd, Prospect Heights, IL 60070</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전 4:00 새가족도: 오후 7:30 새가족도: 오후 9:00 TL: (501)820-8028, Fax: (501)820-2179 809 Kirby Ave, Little Rock, AR 72217</p>	<p><b>앵커리지델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예배: 오전 10:00 수일예배: 오전 11:30 새가족도: 오후 7:30 새가족도: 오후 9:00 TL: (807)344-6446, Fax: (807)344-2187 8220 Greenwood St, Ann., AR 70318</p>	<p><b>앨파소델린교회</b>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예배: 오전 6:00(월-목) 수일예배: 오전 7:30 새가족도: 오후 7:30 TL: (908)517-5400, Fax: (908)517-5281 5418 Alvin Ave, Ft. Peck, MT 59814</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윤걸 주일예배: 오전 7:30 수일예배: 오전 8:30 새가족도: 오전 12:00 새가족도: 오후 7:30 TL: (214)342-0286, Fax: (214)342-0627 736 W. Hearst Ave, Houston, TX 77042</p>			
<p><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8:00 TL: (254)434-8703, Fax: (254)431-4923 208 W. 5th St, Abilene, TX 76901</p>	<p><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예배: 오전 8:00 수일예배: 오전 11:00 새가족도: 오후 7:30 새가족도: 오후 9:00 TL: (703)947-6447, Fax: (703)947-4448 4813 Matthews Rd, Alexandria, VA 22303</p>	<p><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삼 주일예배: 오전 8:00 수일예배: 오전 8:30 새가족도: 오전 11:00 새가족도: 오후 7:30 TL: (804)278-7000, Fax: (804)278-7554 20211 Robison Rd, Richmond, VA 23225</p>	<p><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예배: 오전 8:30 수일예배: 오전 11:30 새가족도: 오후 7:30 새가족도: 오후 9:00 TL: (410)209-0516, Fax: (410)209-0523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예배: 오전 8:30 수일예배: 오전 11:30 새가족도: 오후 7:30 새가족도: 오후 9:00 TL: (253)925-1098 7461 E. Verde St, Tacoma, WA 98406</p>	<p><b>타코마사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예배: 오전 6:00 수일예배: 오전 8:30 새가족도: 오전 11:30(월-목) 새가족도: 오후 7:30(월-목) TL: (253)925-0207, Fax: (253)925-0424 9702 E. St. Steves, WA 9844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병 주일예배: 오전 8:30 수일예배: 오전 9:30 새가족도: 오전 9:00 새가족도: 오후 7:00 TL: (253)647-8876, Fax: (253)647-8876 8424 E. Tidwell Ave, Tacoma, WA 98444</p>			
<p><b>렘파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예배: 오전 8:30 수일예배: 오전 10:30(월-목) 새가족도: 오전 12:30 새가족도: 오후 7:30 TL: (480)778-0165, Fax: (480)667-3427 1120 E. Shawnee Rd, Chandler, AZ 85286</p>	<p><b>하트포트제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진만 주일예배: 오전 8:30 수일예배: 오전 10:00 새가족도: 오전 12:00 새가족도: 오후 7:45 TL: (860)649-4770, Fax: (860)647-8665 35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65</p>	<p><b>세계로 넘어가는 교회</b> <b>하와이지역</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예배: 오전 8:30 수일예배: 오전 11:30 새가족도: 오전 11:30 새가족도: 오후 7:00 TL: (808)383-0971 1528-A Palolo Ave, Honolulu, HI 96815</p>	<p><b>에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예배: 오전 8:00 수일예배: 오전 11:00 새가족도: 오전 11:30 새가족도: 오후 7:30 TL: (908)729-7064, Fax: (908)729-4292 1063 5th Ave, Flemington, NJ 08815</p>	<p><b>하와이 한국교회</b> 담임목사: 김순준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전 11:00 새가족도: 오전 11:30 새가족도: 오후 7:00 TL: (808)277-2526, Fax: (808)277-5622 1321 E. Bartok Rd, Hilo, HI 96716</p>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원구 주일예배: 오전 8:00 수일예배: 오전 11:00 새가족도: 오전 11:30(월-목) 새가족도: 오후 7:00 새가족도: 오후 9:00 TL: (808)947-6262, Fax: (808)947-6487 2122 Metcalf Rd, Honolulu, HI 96822</p>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은 2012 가을학기 개강 영성 수련회에서 강사로 나선 최약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 만나라”

#### 국제개혁대 2012가을학기 개강영성수련회

국제개혁대학교(총장 박헌성 박사)는 2012 가을학기 개강영성수련회를 '깊은 데로의 초대' 주제로 27일과 28일 양일간 본교 채플실에서 최약선 목사(총남 논산중앙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했다.

본교 변경진 학우의 찬양인도와 교무처장 나벤자민 목사 사회로 열린 첫날 수련회는 이성수 대학부학장 회장의 기도, 박미성 대학부학장 회장의 성경봉독, 박헌성 총장 인사로 이어졌다. 이어 최약선 목사가 '깊은데로의 초대'(눅5: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내가 경험하는 것,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경험과 배움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님께서 시몬을 쓰시려고 깊은 데로 초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깊은 데로 초대되길 바란다. 깊은 데로 가려면 내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주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길 바란다. 내 인생의 조각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붙일 때 인생 끝에 믿음의 아름다운 그림을 바칠 수 있다. 주님을 만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둘째 날 수련회는 심기성 대학원학생회 회장이 기도를, 임정식 대학원학생회 부회장이 성경봉독을 했으며 최약선 목사가 '저 마을로 가자'(막1:35-3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 본사방문



본사를 방문한 김상환 총재(중앙)와 미주본부선교사들

세계결핵제로운동 미주본부 총재 김상환 선교사가 김의중, 김대호 선교사와 함께 22일 본사를 방문, 금번에 설립된 미주본부 소식과 함께 세계 결핵제로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1999년 서울에서 20여명이 모여 탄생된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총재 권이혁 박사)는 그동안 북한에 밀가루 지원, 결핵약 지원 등을 비롯해 북한 어린이 생명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오며 중국, 방글라데시 등 세계 속에 지부를 설립하고 결핵을 앓고 있는 10만 명 이상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켜왔다.

김상환 선교사는 지난 19일 북가주지부 설립예배를 드렸으며 미

### 세계결핵제로운동 미주본부총재 김상환 선교사

주지역본부 총재로 더 힘차게 일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설명했다. 김 선교사가 이 일에 전념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29살이 되던 해 김 목사는 결핵균이 뇌로 들어가 결핵성

와 애틀란타는 지부가 설립돼 있었으며 금번에 LA에 미주본부부를 설립하고 사역을 확대해 갈 것을 천명했다.

김상환 선교사는 "세계적으로 결핵환자가 많은데 그중 북한이 거의 120만 명을 차지하고 있고 놀라운 것은 미주지역 한인들도 많은 숫자가 결핵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미주지부를 통해 해야 할 일들을 세 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첫째로 현재 한국은 북한과 강경대치 속에 있기에 북한 결핵 어

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히는 김 총재는 "북한으로 보내는 약은 유한양행 제품입니다. 영양제를 포함해 한 어린이가 6개월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약인데 유한양행 협찬을 받아 30달러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결핵약은 4개월 정도 복용하면 치유가 되는데 안정성을 위해 1인당 6개월분으로 준비해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이일을 위해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북한 어린이대상 출발 전 세계 다수지역에 보급

뇌막염을 일으켰고 5-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 아래 식물인간처럼 살아가야 했다. 이때 김 목사는 "내가 이 병에서 풀려나면 평생 결핵 환자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후 김 목사는 한국과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결핵환자를 돕는 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다 99년 뜻있는 이들과 발기인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해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이미 해외지부를 통해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 미국 덴버

린이들에게 약품보내기가 쉽지 않지만 미국은 인도적인 관계 속에서 약품 전달이 용이하고 둘째로 미국에 불법체류자가 1,300만 명이 있는데 이들 중 한국인이 130만 명 정도이다. 이들을 위해 미국 결핵 총책임자와 세계결핵제로운동 미주지부와 함께 결핵퇴치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북한과 미주지역 외에 결핵환자가 많은 곳이 남미인데 남미 경제 사정으로 관심 가질 수 없는 수준이기에 그들을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해 미주지

한편 9월 8일 애틀란타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북한결핵어린이 생명 살리기 자선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북가주본부부가 계획 중인 이 콘서트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폴포츠, 탤런트 최수중 하희라 부부 아역 탤런트 박지미 그리고 K-pop스타 등이 무대에 설 계획이다. 세계결핵제로운동 미주 각 지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LA (714)380-0095, 샌프란시스코 (510)780-6283, 애틀란타 (404)429-4261, 덴버 (303)319-9097. <이성자 기자>



### 목회서신

## 종말에 대한 자세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교회 담임)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입니다. 세대주의에 집착한 가운데 미래의 때나 시기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극히 주관적인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거나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말의 내용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양치기 소년과 같이 종말에 대해 너무 속고 식상한 나머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하여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하나의 연합된 단일 정부 및 종교와 경제를 이루는 일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종말을 알리는 사건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찾아올 이러한 미래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그분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교리를 논할 때가 아니며

주관적인 체험을 자랑할 때도 아닙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에의 만족을 찾으려 하셔도 안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부부처럼 눈 가리고 이웅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주님은 마 24:44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세상에 취해 사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조차 잊어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린 영혼들을 기억하고 맞이하십니다. 평소 신실하게 종말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주님의 품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마치 철의 성문을 가진 물체가 자석에 끌려서 당겨 붙듯이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석에 따라붙지 못하는 물체는 그냥 남아 있겠지요.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종말을 맞이하여 자석에 따라 붙는 성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 흑인 다수 교회서 담임하는 한인목사

#### 워싱턴포스트, 피터진 목사의 피스 헬로우십 처치 목회 보도

흑인이 대다수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한 한인 목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5일자에서 한인 피터 진(Peter Chin) 목사를 소개했다. 올해 33세로 워싱턴 DC 흑인 밀집지역에 소재한 'Peace Fellowship' 교회 담임목사다. 이 교회는 설립된 지 10년 된 다인종교회로 교회 뒷벽에는 10개 언어로 '예수'가 쓰여져 있지만 교인 대다수는 흑인이다.

이 신문은 한 주일예배 모습을 소개했다. 진 목사가 "오늘 봉사활동을 한 청소년들 일어나세요.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하자 흑인 청소년 여러 명이 수줍어하며 일어섰다. 그러자 조지워싱턴대 백인 여학생, 교회 근처 아파트에 사는 흑인할아버지, 정장을 입고 교회에 온 아시안 노부부 등 교인들은 격려의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신문은 보통 한인들과 흑인들의 관계는 긴장돼 있는데 한인 진 목사가 어떻게 흑인이 다수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됐는지를 풀어내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진 목사는 의사가 되려고 했지만 한 기독교 캠프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목적이 없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변화

하는 것을 보고 의대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다.

신학교 졸업 후 대형 한인교회에서 대학부 목사로 활동하던 그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2009년 9월 아내와 함께 흑인이 많이 거주하는 워싱턴 DC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내의 유방암 등으로 진 목사는 지난 1월 개척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했고 새 교회를 찾았다.

그는 한 한인 친구의 초대로 'Peace Fellowship'에 방문했다. 'Peace Fellowship'을 10년 전 흑인인 데이스 에드워즈 목사가 주변의 흑인 노동자층을 대상으로 개척한 교회이지만 에드워즈 목사가 대학강사, 의사당 체플린으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돼 비흑인들, 상류층들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진 목사는 교회에서 다른 인종의 교인들이 섞여 앉고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인종을 신경 쓰지 않는구나. 완전히 다인종, 다계종 교회'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신문에서 밝혔다.

진 목사 가정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출석 3주 후 진 목사는 에드워즈 담임목사로부터 자기 후임으로 교회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미네소타의 다른 교회 목사로 갈 예정이었던 에드워즈

목사가 그를 후임자로 지목한 이유는 하나. 자신이 섬기는 자들과 함께 살려는 진 목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 것.

진 목사는 자신이 담임목사가 되는데 흑인 교인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지 의문이었다. 어려서부터 보아온 한인교와 흑인교의 좋지 않은 관계 때문이었다. 시카고에서 모자를 가졌던 진 목사의 아버지는 흑인 도둑에게 강도를 당해 흑인남자들이 지나가면 차문을 잠그는 등 흑인이 불신했다.

지난 봄 DC의 한 흑인 시의원은 한인 등 아시안들이 DC내 흑인사회에 가계를 열고 돈을 벌어가면서 흑인들과는 같이 살지 않고 기여도 없다며 아시안계 상점을 '더러운 상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흑인교인들에게 담임목사가 흑인에서 한인으로 바꾸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는 이민 2세로 자신이 흑인들을 향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경험한 두려움에서 비롯됐지만 자신의 경험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6살인 자신의 딸 세대는 더욱 열려있다고 말한다. "딸이 다니는 학교는 99%가 흑인이다. 하지만 딸이 자신을 흑인들과 동일시 하면서 다른 사람과 분리하고 구분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거절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다"고 진 목사는 밝혔다.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 동부교계 기사판



## 성지순례 특강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주최하는 '이스라엘성지 순례 특강' 오픈강좌가 9월 11일(화)부터 14일(금)까지 김주경 목사(영국 암노스선교회 대표)를 강사로 열린다. 시간은 11일, 12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3일과 14일은 저녁 6시-11시 시간도 오픈한다. 동문과 재학생 및 성지순례 참가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문의: (718)463-7163, (646)717-2733

## 뉴욕전도대학교 가을학기 학생모집

뉴욕전도대학교(학장/이사장 김수태 목사)가 2012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9월 4일(화) 오전 10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는 이 학교는 12주 동안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구성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전도훈련, 오후 2-4시는 현장 전도훈련을 나간다. 저녁반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강의하며 현장전도훈련은 토요일이나 주일에 하게 된다. 강사는 김호성 목사(세계도시선교회), 김진호 목사(뉴저지 예수마음교회), 마준호 목사(Go For Jesus-도시선교), 박상천 목사(뉴저지소망장로교회), 김종원 목사(예수전도단) 외에 다수가 있다.

▲문의: (646)623-4551, (516)528-9119

## 패밀리터치 후원모금행사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 창립 11주년 기념 후원모금행사가 10월 14일(주) 오후 5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다. 동 단체는 한인 이민가정을 세우고 교회의 가정 사역을 돕는데 관심 있는 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201)242-4422, 647-1446

## 뉴욕청소년센터 SAT강좌 개강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가 2012년 가을 SAT 강좌를 시작한다. 기간은 9월 11일부터 총15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센터 사무실에서 갖는다. 과목은 Math, Writing & Critical Reading이며 수업료는 450달러. 등록은 9월 7일까지 하면 된다.

▲문의: (718)321-1010, (718)570-3881

## 청소년 캠프 참가자 모집

평화나눔공동체(대표 최상진 목사)는 유엔국제기구들과 함께 오는 9월 15일 저녁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유엔 국제 오존층보존의 날' 청소년 캠프를 워싱턴DC 평화나눔공동체 센터에서 개최한다. 참가비는 세미나 워크숍 및 숙식을 포함해 150달러이며, 중고대학생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0명 선착순 마감으로 참가자들은 각각 자신의 이력을 적어 신청하면 자세한 프로그램과 준비물을 얻을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20시간의 봉사활동 크레딧을 받게 되며 내년 여름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청소년세계대회' 참가 자격을 얻게 된다.

▲문의: (571)259-4937

## APPA 여름캠프 250여 한인 청소년들 참여

워싱턴DC 평화나눔공동체(APPA)가 주최한 여름캠프에서 250여 명의 한인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여름단기선교와 노숙자제협학교를 졸업했다.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욕, 워싱턴 등 미전역에서 참여한 한인 젊은이들은 매주 한 주간씩 열리는 이번 단기선교훈련을 통해 타인종선교, 노숙자선교, 인종화합선교, 지역사회회개발에 집중적인 교육과 현장선교 훈련을 받았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유엔공보국과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국적인 빈곤문제,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을 기독교적

인 관점에서 연구 분석하고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평화나눔공동체 선교사역을 통해 변화를 받고 새 삶을 살게 된 노숙자들의 간증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감동이 됐다. 노숙자단기선교에 참석한 제니 김양(웨버웨스트고교 11학년)은 "노숙자로 인생의 밑바닥을 허덕이다가 한인들의 사랑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돼 '예전에는 한인들에게 좋은 호감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인들이 자랑스럽다'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체)

# 회칙개정안-건물이전추진위 구성 통과

### 27일 뉴욕교협 임시총회... 정기총회 10월 22일

뉴욕교협이 지난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칙개정안과 건물이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과시켰다. 회의는 5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양승호 목사 사회로 회장 인사, 개회기도(장석진 목사), 회원 절명, 개회선언, 회순제택, 안건토의, 광고, 폐회기도(한재홍 목사),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승호 목사는 이번 임시총회의 2가지 안건, 교협회칙 개정안 교협건물이전 건을 발표했다. 1안은 법규위원장 이병홍 목사가 법 개정의 목적과 경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희선 총무가 개정내용을 항목마다 설명했으며 거수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항은 신현택 재산관리위원장이 건물이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뉴욕교협 임시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전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양승호 회장은 이전추진위는 회장 임기에 관계없이 추진하되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것을 독려했다. 한재홍 목사는 이번 건물이전 문제가 부각된 것은 우드사이드 청소년 센터 쉼터 매각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양승호 목사는 새 건물의 성격이 교협에 도움을 줘야 한

다고 부연설명 했다. 또 방지가 목사는 현재 건물구입 시에 청소년센터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건물이전은 이미 가결된 사항(2004년)이므로 이전추진위원회가 모든 과정을 추진하되 최종결정은 임시총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 구성은 교협 3명, 증경회장단 2명, 이사회 2명, 청소년센터 2명 총 9명으로 하되 구체적인 명단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날 교협은 이단경계 포스터를 배부하기도 했다. 김종훈 목사는 "요즘 신천지가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 일을 만들어(일부러 쓰러짐) 교회로 고

## UMC 박정찬 감독 뉴욕연회 떠나

### 9월 서스케하나 연회 감독으로 부임

미연합감리교(UMC) 뉴욕 연회 박정찬 감독(사진)이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9월 1일 서스케하나(Susquehanna) 연회 감독으로 부임했다. 뉴욕연회 한인코커스(회장 김성찬 목사) 한인 목회자들은 지난 27일 후러심재일교회에서 환송모임을 가졌다.



▲박정찬 감독

박정찬 감독은 답사를 통해 "지난 8년간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한다. 또한 한인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것을 감사한다. 또 선교의 동반자가 되어준 것을 감사한다"며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지금 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를 남겼다. 박 감독은 또 "미연합감리교는 문

을 여는 역사를 쓰는 교단이다. 아직도 인종주의가 많은 미국 동남부에서 조영진 목사가 감독으로 선출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신설된 서스케하나(Susquehanna) 연회는 펜실베이니아 백인지역으로 935교회 16만3천명의 교인들이 속해 있어 뉴욕연회의 2배 정도 규모이다. 미연합감리교(UMC)에는 63개의 연회가 있으며 현재 박 감독 외 북일리노이연회 정희수 감독, 버지니아연회 조영진 감독 등 3명의 한인 연회 감독이 있으며 은퇴감독으로는 김해중 목사가 있다. 아시안 첫 뉴욕연회 감독이었던 박정찬 감독은 서울 대광고교와 감신대를 나온 후 1976년 미국으로 이민, 드류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 및 목회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로체스터 한인연합감리교회와 다이아몬드힐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교단 소수인종목회센터 부총무를 역임했으며 1998년 뉴저지 허드슨지역 감리사를 거쳐 2004년부터 뉴욕연회 감독직을 수행해왔다. <유원정 기자>



'제11차 유엔세계청소년대회' 한인 청소년 대표단 참가자들

## "맑은 영성 학교"(3) 관계세우기 개강

본지 '영성칼럼'의 필자 이희녕 사모(뉴저지복음장로교회)가 강의하는 "맑은 영성 학교"(3) 관계세우기(relationship builder)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각각 열린다. △뉴욕: 남교회(담임 박상일 목사) 교육관(51-11 퀸스블라바드, 우드사이드), 9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저지: 산소망교회(담임 조영제 목사), 9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시간은 뉴욕과 동일하다. 강의내용은 △하나님과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1. 남편이 이해 2. 건강 부부정 사진-결혼관, 물질관, 성관, 가정관 세우기, 3. 부부갈등) △자녀와의 관

계(미성년자녀와의 관계 & 성년자녀와의 관계) △고부관계 △교회관계와 교우간의 관계 △불신자 이웃과의 관계 △복의 유통자의 관계능력(3C)△건강한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등이다. 회비는 120달러. 맑은 영성학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 바꾸기 훈련/성령행전에 기도로 앞드리며 생명을 살리는 절대 순종 사역으로 인물목상훈련을 통한 말씀을 내면화하는 예수님 형상화에 비전(목적)을 두고 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문의: (973)224-3324



## 뉴욕장로성가단, 이사회와 함께 야유회

뉴욕장로성가단이 뉴욕장로성가단 이사회와 함께 지난 26일 오후 합동 야유회를 가졌다. 이들은 베이사이드에 있는 알리폰트 파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념촬영 했다(사진).

# 컴벌랜드 동부 한인 노회 창립 예배

## Organization of Cumberland Korean East Coast Presbytery

지역 목사님, 평신도님, 그리고 신학생 여러분을 한인 이민 역사에 첫 컴벌랜드 한인 노회 창립 예배에 초대 합니다



장 소: 한길 교회  
(박진수 목사 시무)  
211 - 66, 46 Dr.  
Bayside NY, 11361  
날 짜: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30  
연락처: (516) 815-1163

컴벌랜드교회는 1810년 2월4일에 켄터키와 테네시 중간에있는 "컴벌랜드"라부르는 지역에서  
Finis Ewing, Samuel King and Samuel McAdow  
목사님들에 의 해서 개척되었습니다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저희 교단에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펨퍼스 신학대학원 (ATS & SAC 인가), Bethel University 그리고 Cumberland Children's Home 이 Texas에 있습니다  
컴벌랜드교단 본부는 Memphis, Tennessee에 있으며 기관으로는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Historical Foundation Board of Stewardship, Foundation and Benefits Ministry Council 이 있습니다

준비위원  
MODERATOR OF THE SYNOD OF THE SOUTHEAST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  
Elder David Phillips-Burk  
116 Raspberry Way Madison, AL 36757  
Tel : 266-826-7546  
SYNOD OF THE SOUTHEAST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h  
Rev. Forest Prosser: Stated Clerk  
91167 Mountain Creek Road Chattanooga, TN 37406  
(Office) 423-877-4114 (cell) 423-432-3584



# ‘나를 세운 그 기도’ 주제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기도간증문 공모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서인실)는 기도간증문을 공모한다. 주제는 ‘나를 세운 그 기도’이며 미국 및 해외 거주 평신도와 신학

생,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언론협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누군가의 특별한 기도’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감사함을 전하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를 마련키 위함’을 목적으로 기도간증문 공모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도간증문의 내용은 기도를 해 준 사람, 기도 내용, 당시 나의 형편, 기도응답체험 등이며 레터 용지 2장 분량(10포인트, 더블스페이스) 이내로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간증문 접수는 이메일 worldkoreanema@gmail.com 으로 보내면 된다. (박준호 기자)



예수전도단 나사창 선교연합 비전의 밤에서 홍성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2 밀알의 밤에서 허부이치치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 예수전도단 나사창 선교연합 비전의 밤

예수전도단 나사창 선교연합(대표 김영환 목사) 비전의 밤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22일과 23일 양일간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최 혁 목사)에서 개최됐다. 윤주형 목사(전 한국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예배인도자, 올리브트리 미니스트리 대표)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둘째 날 집회는 김영환 목사가 사역소개를, 구원화 사모(새생명명전교회)가 특송을 불렀으며 홍성건 목사(제주열방대학원장)가 국제 YWAM 동북아시아 대표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마28:18-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홍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감소하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이라 강조하며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제자를 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제시 되는 것이 아닌 삶의 끝까지 주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또한 족속은

단지 민족적 개념만이 아닌 정치영역, 사회영역, 문화영역 등 모든 영역까지를 가리킨다”라고 말했다. 홍 목사는 “선교사는 특정한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각자의 분야, 각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그곳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홍성건 목사 인도로 합심기도를 한 후 박해영 선교사(예수전도단 나사창연합회 상임이사)가 본 선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홍성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첫날 집회에서는 지명현 목사가 특송을 했으며 홍성건 목사가 ‘눈을 들어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주리라!’(창13:14-18)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 강사 닉 부이치치... 연일 대성황

####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 2012 밀알의 밤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2 밀알의 밤이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성황 속에 열렸다. 24일 저녁 7시30분에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열린 첫날 집회는 본 교회 본당은 물론 복도와 식당까지 닉부이치치를 보기위해 관객들로 가득 채운 채 큰 호응 속에 집회가 진행됐다. 또감사선교교회 인조이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 차세대 담임)가 환영의 말과 기도를, 밀알연합사회찬양팀 찬양, 장학금 영상, 이영선 목사(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가 인사 및 닉부이치치 소개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닉부이치치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알지 못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아서이고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아서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

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셨고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을 크게 하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꿔 주셨다”고 말했다. 닉은 “하나님은 나를 팔고 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태어나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기적을 못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최고를 원하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닉부이치치의 인도하에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며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25일 남가주사랑의교회, 26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밀알의 밤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박준호 기자)

### ‘더 스토리-아름다운 세상’ 주제

#### 남가주사랑의교회 박준호 콘서트

남가주사랑의교회는 박준호 성가사를 초청, 26일 오후 7시 찬양 ‘더 스토리-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열었다. 서울대 음대와 뉴욕 맨해튼 매니스 음대를 졸업한 후 한동대학교에서 기초교양학부 객원교수로 강의하고 있는 박준호 성가사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간증으로 풀어내었다. 대학 4년간 A학점의 우수생이었던 박 성가사는 “개척교회에 지휘자로 청빙돼 갔었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

에서 단지 다른 교회보다 사제비를 조금 더 준다는 조건으로 지휘자로 사역하게 됐다. 어느 날 집회에서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 찬양사역자의 길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시계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시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성가사는 “나 자신이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고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 박준호 콘서트에서 박준호 성가사가 찬양하고 있다

난 후 단지 100년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위해 노래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박 성가사는 이날 ‘하나님의 은혜’

등을 부르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제1회 LA기윤실 사회봉사상

LA기윤실이 제1회 사회봉사상 신청자를 모집한다. 마감은 9월 21일(금)까지이며 오는 10월 30일(화) LA 기윤실 건강교회 포럼 시간에 시상한다. 시상품은 기념상패와 1,000달러이며 심사기준은 △사업의지 부분: 사회봉사에 대한 비전과 실천의지 심사 △사업기여도 부분: 지역 사회에의 끼친 영향력 심사 △사업 운영부분: 운영의 건강성, 합리성, 전문성 심사 등이며 1차 서류심사는 9월 28일에 실시되며 2차 인터뷰는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10월 12일에, 그리고 3차 최종선발 및 발표는 10월 22일이다. ▲문의: (213)387-1207

### 선교 오행침 침술강의

라파선교회(회장 오덕상 장로)는 선교오행침 침술강의를 9월 6일(목)부터 총 12회에 걸쳐 생수의강교회(담임 강신역 목사 2865 W. 7th St. LA)에서 진행한다. 시간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이며 등록비는 250달러(교재용 바인더 및 침 제공). ▲문의: (213)703-0920

### 그레이스신학교 세미나

그레이스신학교(총장 로널드 매너한 박사) 한국어 선교학박사 과정에서는 9월 5일(수)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US Center of World Mission(1605 E. Elizabeth St. U5D Pasadena)에서 ‘교차문화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탐 스톨터 박사(그레이스신학교 교수). ▲문의: 허귀암 목사/(714)308-7308, 김영환 목사/(213)220-2498

### 미주장신대특강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는 2012년 가을학기기를 맞아 한국 구약학계의 원로이자 신학계에 큰 업적을 남긴 박준서 교수(전 경인여대 총장)를 초청, A.S.T.(Advanced Studies for Theology) 과정 특별강의(구약신학)를 개설 진행 중이다. 또 탐 스톨터 박사(선교학박사, GTS교수)를 초청해 ‘간(間) 문화적 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라는 주제로 9월 4일(화) 오전 11시 신학교 채플실에서 특별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본 강연회는 선교사들과 타문화권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현지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인식체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다루게 된다. ▲문의: (562)926-1023

### 2012 인도차이나 선교사대회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는 2012 인도차이나 선교사대회를 10월 29일(월)부터 11월1일(목)까지 개최한다. 이번 선교사 대회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의 인도차이나 선교사들 수백 명이 모여 기도와 포럼을 통해 사역 내용을 자료화하고 현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문의: (714)296-4360/장장호 목사

### 제2회 LA사랑나누기 5K마라톤

제2회 LA사랑나누기 5K 마라톤이 해피 빌리지 주최로 개최된다. 9월 8일(토) 오전 9시 한인 타운 내 윌셔와 옥스포드에서 시작돼 후버 길을 돌아 올림픽과 놀만디에서 끝나게 된다. 이번 마라톤 행사는 미셸 오바마가 진두지휘하는 아동 비만 방지 프로그램 ‘렛츠 무브’(Let's Move)의 일환으로 열리게 된다. ▲문의: (213)368-2607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을 찾습니다.”

## 제1회 LA 기윤실 사회봉사상

건강한 미주 한인교회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온 로스앤젤레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LA기윤실)은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교회, 단체, 개인을 알리고 표창하기 위해 'LA 기윤실 사회봉사상'을 제정하여 시상합니다. 이 상을 통해 섬김의 삶을 사는 이들을 격려하고 한인교회와 사회에 좋은 모범 사례를 알려, 사회봉사의 실천이 더욱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 **심사기준:**
  - 1) 사업 의지 부분: 사회봉사에 대한 비전과 실천의지 심사
  - 2) 사업 기여도 부분: 지역사회에의 끼친 영향력 심사
  - 3) 사업 운영 부분: 운영의 건강성, 합리성, 전문성 심사
- **신청기간:** 2012년 9월 21일(금)까지
- **신청자격:**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일에 열심 있는 교회, 단체, 개인
-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lacem.org) 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cem\_la@yahoo.com
- **심사과정:** 1차 서류 심사: 9월 28일(금) 까지  
2차 인터뷰: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10월 12일(금) 까지  
3차 최종선발 및 발표: 10월 22일(월)
- **시상식:** 10월 30일(예정) LA 기윤실 건강교회포럼에서 시상
- **시상품:** 기념 상패와 \$1,000의 시상금 전달
- **주 관:** LA 기윤실, 213-387-1207 / www.lacem.org / cem\_la@yahoo.com

## 선교 오행침 침술강의

영혼구원 및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라파선교회(Rapha Mission)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 오행침] 침술강의, 제 20기를 개최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품으신 분들과 평소 침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본 적인 침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주 최: 라파선교회 (Rapha Mission)  
강 사: 오덕상 장로(오덕상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일 정: 9월 6일 부터 시작 (총 12회)  
시 간: 매주 목요일 7:00pm ~ 9:30pm  
등록비: \$250 (교재용 바인더 및 침 제공)  
장 소: 생수의강교회  
2865 W. 7th St. L.A., CA 90005  
(7가 웨스트 모어랜드와 후버 사이)

라파선교회홈페이지  
[www.larapha.org](http://www.larapha.org)

\*등록은 9월 6일 개강일에 직접 등록 하실 수 있으며 등록당일은 30분 전에 도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오행침 침술강의를 수료하신 분은 본 선교회의 국내외 의료선교사역에 동참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의 (213)703-0920

MISSION  
**RAPHA** 라파선교회



# 예장합동 100주년기념 '기도한국 2012'

## 2만여 성도, 통곡의 벽앞서 감사·회개 기도

[미선라이프] 2만여 명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기도의 능력을 잃었던 죄악을 회개하며 큰 소리로 "주여"를 외칠 땐 거대한 폭풍우 가운데 있는 듯 했다.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은 26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회개 기도회인 '기도한국 2012' 대회를 개최했다. 기도한국은 성경적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며 국내 최대교단으로 성장한 예장 합동의 대표적 기도회로 총회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12개 프로그램 중 정점에 있는 행사다.

500여 교회의 성도들이 참석한 대회는 감사와 영광, 고백, 위로, 회복, 새로운 100년 선포비전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정현(사랑의교회) 이문희

(맑은샘광천교회) 이근영(인천 제2교회) 민찬기(예수인교회) 이규왕(수원제일교회) 목사 등 설교자들은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애도하며 회개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촉구했다. 메시지처럼 대회 준비위원회는 강단 뒤 조형물을 통곡의 벽으로 형상화했다. 아름답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오정현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오늘의 좌절과 고통을 주신 것은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다"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도와주시는 분이신 사실을 분

명히 깨닫고 감사로 영적 강대국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역설했다.

이근영 목사는 "교회를 향한 솔한 비판과 비난에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들어 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족과 교회가 고동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넉넉히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찬기 목사도 "교회의 침체와 절망적 상황만 보고 패배주의적 사고를 가지면 주님께 주어진 자량 2대의 신 하나님, 용서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했다. 이규왕 목사는 "이 민족의 힘은 정치 경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

는 정직에서 나온다"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한국은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보내 "지역과 세대,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달라"고 부탁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자가 외치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무엇입니까' 등 10개 질문에 대해 '기도입니다'라는 글씨가 적힌 책자를 펼쳐 보이며 백문일답 형식으로 신앙고백을 했다.

대회 준비위원장 소강석(새예언교회) 목사는 "육망의 바벨탑만 쌓고 있는 이 시대 기도한국 대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브라함의 제단과 같은 시간이었다"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단을 통해 교단의 새로운 100년, 영광의 100년을 더 위대하게 쓰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 5개 예장 개혁교단 9월 통합 총회

최고 통합을 선언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 개혁 교단 5곳이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미아동 미아소망교회(장근태 목사)에서 통합 총회를 개최한다.

예장개혁 총회장인 장세일 목사는 28일 "통합교단을 만들기 위해 5개 교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통합전권위원회가 대통합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개혁'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타 교단들에도 교단 통합의 문호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합전권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총회의 임원과

총무, 총회 직원, 총회 산하 기관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통합교단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인준 문제는 통합 총회에서 다음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5개 교단 가운데 국제개혁(총회장 황인찬 목사)은 교단통합 문제를 두고 교단 내부의 찬반 논란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 목사는 "5개 교단 모두가 순조롭게 통합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상황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반드시 5개 교단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교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 작업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기감 평신도 '재능기부운동' 전개 120만 성도 참여...기독교단 차원 처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평신도 재능기부운동을 전개한다.

주요 기독교 NGO, 개교회 등에서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이 기독교계 교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감이 펼치는 재능기부운동의 취지는 교단 소속 교회 평신도들이 지닌 각자의 특기와 재능을 발굴해 선교 및 사회봉사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

기감 총회 사회평신도부 박은애 부장은 26일 "120만 감리교 성도들의 인적·영적·물질 재능이 이 사회에 희망을 주는 불쏘시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운동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기부가 수 있는 '재능'의 범위는 사소한 집안일부터 전문적인 재능 분야까지 다양하다. 가능한 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독려 장이다.

기감 재능기부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교단 내부 차원에서 재능기부 인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활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산골의 A감리교회를 다니는 B집사 가 기부할 수 있는 재능 내용까지도 교단 본부의 '재능기부은행'에 등록, 필요할 때면 언제든 기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감 본부에 따르면 재능 분야에는 의료·교육·건축·IT 등 전문지식 분야부터 재능·물자·인력지원 등 후원 분야, 기독교 특성을 고려한 은사(하나님이 준 재능) 등의 기타 재능 분야까지 총 19개로 분류돼 있다.

사회평신도국은 현재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재능기부운동의 취지를 알리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다.

# 태풍 전국교회 강타...교계 복구지원

## 곳곳서 예배당·침탑 붕괴 행사취소 등 불편

[미선라이프] 제15호 태풍 '블라벤'이 28일 서해를 따라 북상하면서 교회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편을 겪은 곳도 많았다.

제주 노형동의 한 교회 침탑이 강풍에 넘어지며 근처 전봇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근 52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순간 정전을 포함해 제주지역 5만여 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제주시 다량꽃길의 한 교회 침탑도 강풍에 맥없이 넘어졌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주민

들의 피해는 극심했다. 한 성도의 집 침탑이 무너져 내렸고 담벼락이 허물어진 곳도 있었다. 득량도교회 화장실을 덮고 있던 슬레이트는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됐다. 통신사 중계기가 망가지는 바람에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연결되지 않았다.

득량도교회 서정운 목사는 "섬에 사는 30여가구 대부분이 고구마, 고추 농사를 짓는데 작물이 다 쓰러지고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졌다. 20가 구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팔팔마을인 전남 해남의 송지동부교회도 강한 바람에 교회 슬레이트 지붕이 뜯겨져 나갔다. 노약자 10여 명이 다니는 미자립교회라 피해 복구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 교회 이운우 목사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데다 예배당에 깔려진 차 당장 수습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앞으로 수리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도 막막하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의 한 교회는 이날 함석으로 된 지붕 일부가 태풍으로 떨어져 주변에 주차된 차량 2대의 유리가 깨졌다. 경기도 수원 정자동 한 빛교회 침탑도 오전 11시쯤 강풍에 쓰러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독도수호 특별기도회를 갖고 독도경비대를 위문할 예정이었

던 감리교 군선교회 측은 27~28일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감리교 군선교회 측은 이날 "태풍 피해를 우려한 일시적인 중단"이라며 "30~31일로 일정을 연기해 정상적으로 독도수호 특별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과 해피나우 등 교계봉사단체들은 피해상황이 파악되는대로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박원영 해피나우 사무총장은 "서울 왕성교회와 광명교회, 서울나들목교회, 인천 옥련중앙교회, 용인 새예언교회, 대구 반야월교회, 목포 주안교회 등 회원 교회들이 태풍 피해 복구에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 문지마 칼부림·폭행 교회 어떻게 대처를...

무차별 흉기를 휘두르는 이른바 '문지마 범죄'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 의정부, 20일 서울 삼전동, 21일 경기도 수원, 22일 서울 여의도 등 문지마 범죄는 때와 장소, 이유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심각성이 있다. 순식간에 격렬한 분노(憤怒)를 표출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이 같은 범죄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다. 사회부적응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는 등 정부·시민단체를 비롯 교회도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나타난다"고 말했다. 분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데, '해소'는 분노를 터뜨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이 목사는 설명했다. 추태와 안양대 교수는 "분노가 마음속에 계속 자리잡고 있으면 분노의 인격이 형성돼 매사에 분노하게 된다"면서 "분노의 감정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 되도록 빨리 잊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교회도 사회 부적응자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희생양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인문회도 이날 "문지마 범죄는 실직과 사회적 소외감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보살피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회 이억주 대변인은 "문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원망이나 욕구를 무차별로 분출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과 공포와 불신으로 불행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서 "자신의 불행은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기감, 세습방지법 만든다

[미선라이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한 교회를 부모와 자녀, 사위가 연속으로 담임할 수 없는 법안을 마련했다. 장로의 자녀도 해당된다. 또 선거권을 정회원 전체로 확대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는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정개정안을 만들었다고 24일 알려졌다.

기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장정회의의 규약인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 '담임자의 파송 제한'에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담임자의 사위와 장로의 자녀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감독과 감동회장의 선거권자를 "각 연회 정회원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로 확대"했다. 당해년도에 허입한 정회원은 제외된다. 현행 장정에는 "정회

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그와 동수의 지방별 평신도 대표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담금 납부에 대한 조항에서 유추해석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 "성실하게"란 단어도 "12월 말일까지 각종 부담금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로 명확히 했다. 또 선거공보에 입후보자의 최근 4년간 임교인수와 결산, 부담금액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감독과 감동회장의 20년, 25년 무효조항은 유지됐다.

과거 범죄경력 증명과 관련한 부분은 "기존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임을 증명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되 실용된 형이 포함된 것을 제출"하도록 명문화 했다. 실용된 형의 기한은 10년으로 정했다. 교회법 저축 부분에선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 하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장정개정안은 27일 장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임법회의에 상정된다. 상정된 개정안은 임법총회에서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시행된다.

# "분노·무거운 짐진 자 껴안을 '안전망' 구축을"

◇'분노' 다스리기=인간의 주된 감정 가운데 하나인 분노는 성경 전체에 총 85회 언급돼 있다. 구약 성경 81회, 신약성경 4회다. 분노에 대한 대표적 교훈은 예베소서 4장 26절에 나온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기록돼 있다. 이는 분노가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감정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노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고 했다.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시 8:1~9)과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왕상 9:6~14)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계 단체와 목회자들은 충격적인 사건들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교회에 근본적인 예방과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회가 '문지마 범죄'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 주는 '섬기는 봉사자'들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목회포럼은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가 명품 서비스를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르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www.le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8 (올림픽 길 건너)

Tel. 213.487.5446 Cell. 213.683.9161 Email. leguesthouse@live.com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 736-6500 FAX. (213) 735-6504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기 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볼펜수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국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방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코스인쇄/복사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열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 이슬람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선교 전문가)

“God is like a drug: Explaining Interaction Ritual Chains in American Mega-church” (신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미국 대형교회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예배 의식의 상호작용의 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음악이나 스포츠도 청중들로 일종의 마약현상으로 분석했다. “다만 종교는 도취

“닐 암스트롱은 무슬림이다”



지난 주말 세계 토크쇼는 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의 사망소식이다. 그는 한국동란 때는 공군조종사로서 무려 78회나 출격, 인민군의 대공포에 낙하산 탈출을 했지만 적지에 떨어지지 않아 구조되기도 했다. 그는 달에 착륙해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식의 간증을 해 일부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의 신앙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구소련의 유리가가린은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나는 신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에 암스트롱이나 가가린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수 년전 한기총 이광선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하면서 “기독교 목사를 거짓말쟁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다.

암스트롱 사망 소식 후에 그의 종교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무슬림들은 그가 달에 착륙하고 나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 초기 이슬람 국가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면서 귀에 “아잔”(이슬람 국가에서 확성기로 코란과 기도문을 읽는 것) 소리가 났는데, 내용은 기도하라는 음성이었다. 그래서 그는 곧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것이다. 이 소문이 너무 요란하게 퍼져서 1983년 미 국무성은 이슬람 국가 대사관에 특별 공문을 보냈다. 내용인즉, 암스트롱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1983년 7월 14일자 미국의 이슬람 전문지 필 파살도 동일한 내용의 서한을 암스트롱의 여비서로부터 받았다. 비서의 글로 보낸 내용은 자기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적이 전혀 없다고.

그는 2005년 9월 6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글로벌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그런 질문을 받고 분명 해명했다. 그런데도 터키의 한 무슬림 신문은 그가 터키에 왔을 때 팔롬 X(미국의 유명한 흑인 무슬림)가 기도한 바로 그 모스크에서 기도했고 많은 무슬림들이 그의 뒤에서 기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나 이슬람을 위한 거짓말은 상관없다. 책임질 필요도 없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도 근거가 없다” 동시에 그가 “나는 달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가가린도 러시아 정교회 신자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 교회 목사들의 설교 역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구술에 보도된 그의 자서전에 암스트롱은 Deist(이신론자)라고 했다. 즉 신의 존재는 믿으나 신의 섭리나 예정은 믿지 않는 계몽주의 사상이다.

지금 우리사회에 무조건 폭로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보도나 아전인수격으로 유명 인사를 자기종교에 끌어들이는 것 역시 종교계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댓글에 일부 무슬림들은 미국 기독교가 두려워 암스트롱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대형교회 예배는 일종의 체면현상이다?



연구보고는 금년 8월 미국 사회학회에서 발표했다. 제목은

위 그림은 미국 대형교회 예배장면이다. 금년 미국 워싱턴대학의 한 연구소가 대형교회 예배는 일종의 마약과 같은 체면현상에 비유했다. 이

감정의 차원이 다를 뿐이다. 초월의 감정과 거룩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특히 오순절 운동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에서 최근 기독교의 영성을 심리학적으로 혹은 지나치게 사회학적 잣대로 비판 분석하는 것은 좀 유감이다. 이러한 연구보고는 기독교회에 하나도 유리한 해석이 아니다. 최근 미국사회가 총기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연구하지 않고 도리어 건전한 가치관이나 윤리관을 제공하는 보수적 기독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보게 하는 것, 그것도 학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회를 폄하하는 것이다. 동성연애나 유산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은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국 탐뱃신학교와 그레이스신학교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유는 직원들이나 교수가 낙태할 때 드는 경비도 학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법률을 통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어제(26일) 아침 영국 BBC도 미국의 윤리적 논쟁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독일 의사, 할례 행한 유대랍비 고소



여기에 대하여 독일의 유대인 연합회 회장 모세 칸도와 이슬람연합회가 발끈하고 들고 일어났다. 남의 종교행위를 간섭하는 것이라고.

독일에서 할례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문화충돌의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다문화사회가 초래하는 사회적 분열현상이다. 독일인들은 일절 “할례”(포경수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 설명: 유대 랍비의 할례의식 장면

뉴욕의 십자가를 시비하는 일부 시민들



911사태 때 폭파된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의 한 교회당 십자가(사진)가 문제화 되고 있다. 이 도시에서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폭파당한 쌍둥이 빌딩 근처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철거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시리아 내전 날로 격화 레바논으로 불똥



레바논에서 아사드 지지자들인 알라위파들과 수니파들이 심각하게 충돌, 레바논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그 레바논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리아 반군들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deadliest week)가 될 것으로 보도했다.

# 선교도식

독도를 가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 하옵소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일본이 알게 하옵소서!” 라는 주제로 ‘2012년도 제5차 지저스 119 독도지킴이 범국민 독도방문 기도대성회’를 개최했다.

한국컴퓨터선교회(대표 이영제 목사) 주최로 열린 금번 독도 방문에는 기자를 포함해 모두 147명이 참석했으며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 동안 열렸다. 22일에 공식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울릉도에서 바다의 거친 파도 때문에 돌아올 수 없어 하루 더 연장했다. 독도를 방문하기 이전과 방문하고 돌아와 매일 저녁 독도를 위한 기도대성회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사무총장 윤요셉 목사의 인도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선언, 발표함으로써 금번 독도방문 기도대성회를 마쳤다.

독도교회에서의 결의문 발표



한반도는 태동 때부터 우리 한국의 땅으로서 아침마다 솟아올라 빛을 발하는 독도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강제 병합 경술국치 102년을 맞아 독도의 아픔에 대한 숙제를 풀기 위하여 ‘지저스 119 독도지킴이’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1900년 고종황제 칙령 제 41호에 의거하여 제 112주년 ‘독도의 날’을 예배와 결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도는 한국 땅’임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거에 없애지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한 세기(100년)를 맞아 열방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민주평화와 안정, 또한 독도를 향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시대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독도가 한반도의 혈맥으로 우뚝 솟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선포하고 관리 보존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전 세계에 독도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보급과 홍보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도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102년 전 한.일간 강제병합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화합에 대한 미래 세 청년의 준비를 다짐한다. 하나, 우리의 행보에 앞서 행하시는 주께서 한반도 민주평화통일과 세계열방과 이스라엘에 참 메시아의 회복까지 이루어 가시려는 화복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한다. 주후 2012년 8월 20일

시리아 수도 장례식서 폭탄테러 12명 사망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도시에서 28일(현지시간) 장례식이 진행되던 중 차량이 폭발해 12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국영TV가 보도했다. 이번 폭발은 다마스쿠스 동남부 외곽의 자라마나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장례식을 노린 테러리스트의 차량 폭탄 공격”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와 관련해 “폭발물이 장착된 차량이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 지지자 2명의 장례식 도중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드 정권 지지자 2명은 전날 또 다른 폭탄 공격으로 숨졌다. 현지 주민은 이번 폭발이 발생한 뒤 거리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구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다른 목격자는 부상자가 150여명에 달하며 응급차 여러대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증언했다. 시리아 국영TV는 48명이 부상했으며 다수가 중상이라고 전했다. 자라마나 지역 주민 대다수는 아사드 정권 지지자들이라고 인권 관측소는 전했다.

이번 폭탄 공격은 다마스쿠스 안팎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시리아 현지 활동가들은 정부군 전투기가 전날 다마스쿠스 외곽을 집중 공격해 최소 6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 자지라가 보도했다. 이날은 반군 조직인 자유시리아군이 정부군의 전투용 헬기를 다마스쿠스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한 날이다. 이런 가운데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는 내전을 피해 터키로 탈출하는 시리아인이 20만명에 달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벨라 월크스 UNHCR 대변인은 터키의 시리아 난민이 “잠재적으로 이 같은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터키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UNHCR에 따르면 최근 14일동안 시리아인이 하루에 최고 5천명씩 터키로 탈출했다. 이는 이전의 하루 약 500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멜리사 플레밍 UNHCR 대변인은 또 지난 주 시리아인 1만2000명이 요르단 북부 자타리 난민촌으로 탈출했다고 “요르단으로 대규모 이탈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요르단과 이라크, 레바논, 터키 등 시리아 주변 4개국으로 21만4천120명의 시리아인이 이주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터키에 등록된 난민은 7만4천112명이다.

한편 시리아의 알리드 무알렘 외무장관은 자국 내전 사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알렘 장관은 이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반(反) 시리아 전선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미국의 도구일 뿐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반군 측에 통신장비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미 시리아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무알렘 장관은 미국이 이란 봉쇄의 일환으로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밥(Bo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 명쾌한 성경해석책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레복음**

장재일목사 **성경의 절기**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복음서들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저자 및 등장 인물들은 대부분 히브리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풀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서는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바레복음의 길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탁월하고 풍부한 해석적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때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절기의 풍습,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적 상황, 성전의 제사의식을까지도 알버튼 헌을 토대로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금강이 있었다면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재일 목사

- 부산신대목회원
- 에부살렘대학성경지도역사학박사
- 현성지대학Ph.D 과정
- 현세이렌교회집회목사
- 현한국어사태연구소연구위원
- 현이스라엘립아카데미대표

서울국제도서전 **BOOK FAIR 2012** 8.20.-24. COEX A/B홀

www.sibf.or.kr

http://www.israelemcademy.com 6월부터 이스라엘입아카데미본격강의!

• 한글인터넷주소: [www.israelem.or.kr](http://www.israelem.or.kr) • 홈에이디: [www.israelem.or.kr](http://www.israelem.or.kr) • 주소: 서울영등포구여의도 164-3 • 전화: 022747-1004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 해피 라이프 (17)



석은옥 (고강영우 박사 부인)

## 나이 들어가는 기쁨, 그리고 나의 기도

나이 들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일구고 함께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어쩌다 이런 행운과 함께 살고 있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는 어느 집안에서나 작은 밀알이 되어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다. 베푸는 삶이 복된 것임을 깨닫고 받는 축복, 누리는 축복보다 더 값진 베푸는 축복을 실천하며 살고 싶다.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서 이전보다 한층 깊은 기쁨과 설렘의 골짜기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늙었지만 젊고, 나이가 많지만 싱싱한 영혼으로 현재를 살며, 미래를 깨우는 일에 정성을 바치면서 끝없이 삶을 열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아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언젠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베풀을 미덕으로 여기며 순간의 손해가 울지라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욕심을 부릴 줄 모르고 비움이 곧 차오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덕을 베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일에 대한 보상과 이득을 따지지 않는 사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가슴이 따뜻하고 예쁜 사람은 차한잔을 마시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을 욕심 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눈과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아랫목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입니다.”



석은옥 여사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성스러운 존재에 감사하며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다.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 부끄럼 없는 떠올리지 못하는 일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다.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쁘게 살고 있고, 남은 미래가 설렘으로 다가온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한다.

그렇다고 늘 기쁜 것은 아니다. 해답하지 않는 한 인간은 완벽하게 기쁨 수만은 없는 존재다. 그러나 인생의 큰 흐름이 기쁨과 설렘이라면 얼마간의 슬픔이나 우울 따위는 그 흐름 속에 쉽게 녹아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주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은 내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할 때에 소망을 주셨고, 세상 풍조가 날아갈 때 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덧없지 않도록 하셨다. 내가 가진 꿈이 참되

도록 항상 은혜로 지켜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한다. 완벽한 기쁨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지혜를 구하고, 두려움 앞에 그분의 강한 힘을 얻으려 기도한다. 항상 풀리지 않고 감사기도를 한다. 나의 작은 꿈이 그분의 일을 이루는 데 작은 밀알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아니, 이미 충분하고도 넘치는 은혜로 다 큰 사람이 이를 수 없는 많은 행복과 꿈을 이루었고, 남은 생을 설렘으로 기대하며 기다린다. 그래서 오늘도 내 기도는 결코 쉽다.

나에게 고귀한 인간 생명을 주시는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를 드리나이다.

남은 생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주시어 값진 삶을 살게 해주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두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



# 선교지 편지

## 주(駐)인도한국선교부

간구와 도고의 기도 청원 오늘(23일) 아침 일찍이 안드라 프라데시(AP) 지역으로 교회개혁 설립을 위하여 갑니다. 온종일 밤 10시가 넘도록까지 순회 집회! 내일(금요일)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청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풍성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주세요.

1) 비코타코타 지역(8월 23일 목요일) 150Km 전후에서 주변의 수십 Km 지역 교회를 순회 집회를 하며, 새로 교회 개척 설립 예정지

를 마지막 점검 확인(Soil Test) 하는 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30명 목회자들 특별 집회 심령 부흥사경회/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집회 후에도 계속 순회 집회가 있습니다.

2) 마테나팔리 지역(8월 24일 금요일) 다시 40Km 더 가서 온 주변지역 순회—16곳의 새 교회 개척 설립지를 살펴보는 일, 200명 목회자 특별집회/Conference를 가지게 됩니다(금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점심 식사 후에는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위로 격려하고 새 교회 개척 설립(16곳)을 위하여 최종 확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와 도고의 기도를 드려주시옵소서!  
마7:7-, 눅18:1-, 막9:29, 요15:7-8, 16, 롬8:26, 34, 빌4:6-7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하셨던 기도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큼, 기도의 응답만큼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12억 오천만 인도 복음화를 위하여 동역하여 주심(요삼8, 고전3:6-9)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2. 8. 23. 새벽  
With many thanks, love, and prayers!

정운진 외 모든 선교사역자 일동  
IEC, BKC, AECS, St. Paul High School, PU College



# 선교지 편지

## 차드

복음자리 그동안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는 외국선교사가 살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이 단지 우리의 보금자리를 넘어서서 주님의 복음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문두-MOUNDOU 차드의 두 번째 도시-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회교도는 이제 차드의 남쪽을 공략하기 위해 이곳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단지 살아가기에 급급하거나 겨우 살아남는(survival) 선교사가 아니라 주님의 의뢰하고 적군에 달려 버리고 담을 뛰어넘는 강한 용사가 되도록 그분께 구하고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자리 1년 동안 강의로 섬겼던 신학교(EBS)를 중심으로 지역개발과 어린이 개발(CDP) 사역을 펼치려 합니다. 마침 올해에는 신학교에서 개발에 관한 강의를 제게 부탁하였습니다. 50여 년 전만해도 이 마을은 사자가 출현할 정도로 제법 영화속 아프리카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누군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당신들은 원래 밀림의 왕 사자였는데 사냥꾼에게 잡혀 우리에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먹이만 받아먹다가 조금씩조금씩 사냥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죠. 지금은 생쥐 한 마리도 사냥하지 못하는 초라한 사자가 되었습니다. 무늬만 사자이지 고양이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서 나와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개발(development)의 참다운 목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복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알며 꾀없는, 때때로 정신에서 구원 받아 풍부의식을 가진 영적거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나라의 개발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까지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과 무능력에 길들여진 메뚜기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쫓고 쫓을 위해 도전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쫓아들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장래의 영적 지도자가 될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하나님나라와 개발의 원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과 마을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센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신학교는 총 3년 과정입니다. 3년 동안 온 가족이 이곳에서 숙식하며 지냅니다. 올해는 34가정 정도가 머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들은 가까운 공립학교에 다니지만 취학 전 어린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위해 누군가 몽학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2:52). 신학교에서 저희에게 약 100\*300m의 땅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올 학기는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참되고 바르게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영적산파가 되어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성령에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2. 왈리아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3. 행복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입생모집과 선교실 건축을 위해
  4. 꾸부의 신학교와 연계해 시작될 지역개발과 어린이개발(CDP)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5. 조빛터, 사랑하는 딸이 카메룬 RFS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세워지도록.

사하라의 별빛 아래서  
조승호, 문유숙, 조빛터 드림  
블로그: <http://blog.daum.net/pray4chad>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7797, Fax. (02)323-823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백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군포시 삼정동 879-10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김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김포시 양곡동 317-21호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영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새연교회</b> 담임목사: 소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명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수영로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승문교회</b>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경철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진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경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안암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안곡교회</b> 담임목사: 정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주안교회</b>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장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정주주의교회</b> 담임목사: 서서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6, Fax. (02)323-879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17)



## 3. 예배중심의 교육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들 중, 예배중심의 교육(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한 그 첫 단계로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들에서는 그 역할들 중 첫 번째로 "도전을 주는 교화"(Edification)와 그 두 번째로 "신앙과 기독교적 성품의 형성"(Faith and Character Formation)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기독교 교육적 역할 그 세 번째로 "양육"(Nurture for Spiritual Growth)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성도들의 양육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양육"이라는 교육적 행위는 피교육자의 성장을 그 목표로 그를 살피고, 돌보고, 영감을 주고, 자양분을 주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돕는 총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대해 우리가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는 이미지는 아마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한다" 할 때 바로 그 이미지일 듯 싶습니다.

좀 더 쉽게는 "기른다" 혹은 "키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의 "양육"이라함은 "자녀(혹은 피교육자)" 바로 그 자체가 그 행위의 대상이며, 또한 그의 전 삶의 측면들(정서적, 인지적, 인

spiritual growth)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예배는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한다"(spiritual nourishment)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적 양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배자들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 자아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새로운 혹은 더 깊어진 이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혹은 더 깊게 불러 일으킨 이해들은 예배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변화와 성장을 추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배자들은 삼위 하나님, 그를 통한 가치 있는 정체성,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으로 향해 가려는 진지한 여정, 더 나아가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숙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롭고 깊은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자양분을 주는, 그러한 예배를 통한 양육은 예배자들이 삶의 문제들과 고통들에 마주할 때, 그에 대한 질문들로 괴로울 때, 그리고 그 해답을 찾으려는 힘겨운 투쟁을 할 때, 그들이 결코 지쳐 쓰러지지 않고 새로운 가치들과 소망을 찾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 예배 통해 성도를 참된 기독교인으로 성숙케 하는 '양육' 이뤄져 영적 자양분 공급하는 예배 통해 삶을 채우고 변화와 성장 추동

격적, 육체적, 행동적, 도덕적, 사회적, 영적 등등)을 포괄하는 그것입니다.

이에 교육자 혹은 어머니가 "기독교적 양육"(Christian Nurture)을 한다고 했을 때, 이는 "자녀(혹은 피교육자)"를 그리고 그의 정서, 지성, 인격, 육체, 행동, 도덕성, 사회적, 영성 등을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기독교적 신념과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그 양육의 대상이 참된 기독교인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과는 거리가 있으나, 저명한 기독교 교육자 호레이스 부쉬벨은 회심 없이도 "기독교적 양육"만으로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주장하기도 했지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양육도 그 목표의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기독교적 양육"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 영역이 "영적"인 부분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물론 다른 부분들도 포함하지만-일반적인 기독교적 양육보다 더 특화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대상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 속하는 자녀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전 연령의 성도들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독교적 양육보다 더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양육은 예배자들의 영성을 길러주고 키워주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다는 의미로 "영적 성숙을 위한 양육"(nurture for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예배자들은 말씀에 아멘하고, 찬양 속에 박수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도 중에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치며, 그들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임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바로 예배를 통해 영적인 자양분을 제공하는 영적 양육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그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만지시고 먹이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영적인 양육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을 비롯한 예배 인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예배가 갖는 영성 성장의 능력을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보다 창조적인 양육의 메카니즘을 고민하고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로 지치고 낙심했을 우리 한인 성도들에게, 그 현실을 버텨내 이길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히 필수적인 것이기에 더더욱 이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 월 다섯의 감사제 (시56:1-13) 찬169장

감사의 시편인 본문은 다섯의 경험 속에 감사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다섯은 어떻게 감사제를 드리는 삶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12) 첫째, 고난당할 때 생겼습니다(1-7). 블레셋에게 잡혀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특이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 고난은 감사를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둘째, 기도할 때 얻었습니다(9).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그대로 아뢰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계수하기를 바랄 정도로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정착하게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낀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겨진 열매입니다(13). 고난에서 구원받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곧, 생명의 빛 아래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구덩이에서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였습니다. 감사 제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롬12:1-2).

### 화 다섯의 확신 (시62:1-12) 찬340장

확신 시편 중 하나로 알려진 본문에서 다섯은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첫째,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임을 확신했습니다(2). 반석, 구원, 요새, 피난처로 확신한 시인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사야(6:1)나 베드로(눅5:1)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배운 공동된 확신이 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진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임김같은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9).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다섯은 인생이란 가치 없는 존

재임을 알았습니다. 속임수와 같은 인생임을 안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주께 토설한 것입니다(8). 셋째, 참 능력은 하나님만이 심을 알았습니다(11). 하나님과 자신을 바로 안 다섯은 실생활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년 때 깨달은 진리(삼상17:45)가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이 배워진 것입니다. 모든 생활에 진정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알고 그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 수 밤의 노래 (시77:-1-20) 찬403장

아삼 시인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회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현실의 은혜를 구했습니다(1). 그는 밤에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첫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2). 많은 고난을 당한 그는 주를 찾아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복됩니다. 그에게만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괴로웠습니다(6-9). 그는 과거의 영적고통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8-9).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그치고 언약이 폐지되는 생각을 하며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찢는 자는 놀라운 치료를 받습니다. 셋째, 주께서 행하신 능력을 사모했습니다(14). 주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금도 간구의 음성들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하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 목 그리스도의 왕권 (시45:1-17) 찬138장

왕의 결혼예식을 통해 왕권을 예찬하는 본편은 사람의 예찬으로 마치지 않고 한 상징주의를 통해 참 왕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6). 병거에 오르는 왕의 위엄이 진리와 은유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까닭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 안에서 왕권을 누리는 그 안에 기름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요일2:27). 둘째, 주인이신 왕께 경배하

고 했기 때문입니다(11). 인간 왕은 단지 상징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시인의 확신입니다. 셋째, 영원히 만민의 찬양을 받으시는 왕이기에 문입니다(17). 그 왕이 메시아 왕권을 가리키는 상징인 까닭은 만민을 대상으로 했고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그 분에게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 금 주를 찬양하라 (시98:1-9) 찬43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힌 본문에서 왜 그를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까? 첫째, 그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1-3). 자기백성을 향하신 구원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어심을 본 시인은 찬양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하심이 모든 찬양의 주제가 돼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만유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4-8). 그 구원주는 온 땅을 다스리는 섭리주이십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 거주하는 모든 것이

모두 그분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을 안 시인은 그분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9). 시인은 만유의 마지막에 의의 심판을 내다보고 그분께 찬양합니다. 진히 임하시고 모든 것을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실 그분께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될 심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 토 의인의 찬송 (시92:1-15) 찬268장

안식일의 찬송시로 알려진 본 시편은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입니다(1-2). 모든 약기를 동원해 찬송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까닭은 주께서 행하신 창조와 섭리와 구원하심 속에 그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갈려있는 것을 내다보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2-3).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도 그의 사랑과 성실을 찾아볼 때 감사와 찬양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악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6-7). 이와 달리 악

인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반드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의인은 번성하기 때문입니다(12-15). 나아가 시인은 의인의 행동과 번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결실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의인의 길은 복됩니다(12-14). 그분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므로 하늘안식을 누리며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연결된 연관하여 새롭게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도서**

선영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격정/결혼, 교양/문학,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라이프, 목회와 신학, 성경/찬송가, 생애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구독, 전도/선교

**음악**

세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오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용품 선물용품, 서상/명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일반달력/기독교달력**

공감도 가격세일

- 달력/수첩 주문제작 가능  
- 교회 로고와 이름 인쇄 가능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2300 Ansi Lumens \$699
- 2600 Ansi Lumens \$799
-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용액 가운은 안주
- 원용액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가능
- 오가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정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헤드라수정강대상  
EH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하면 빛나는 강대상 불타오르도록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3000 5000 6000  
특수디자인 3000 5000 6000  
East Design 크롬 목재(합판) 디자인(수공예품) (합판) 디자인(수공예품) 선형 디자인(수공예품) 목재(합판) 디자인(수공예품) 목재(합판) 디자인(수공예품)

역시에도 다양한 목재종류와 크리스탈 성구사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 762-0011/Fax. (718) 762-8402  
1-800-404-1171

NJ 206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21 S. Virgil Ave. Suite 200 L.A., CA 90005  
213-325-5434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인/터/뷰 이웅장로 (런던올림픽 멕시코 양궁코치)

# 한국-금, 멕시코-은, 동 메달... 하나님께 감사

2012 런던올림픽은 세계 5위라는 순위와 함께 스포츠 한국으로 위상을 높였고 온 국민들을 기쁨과 감동의 도가니로 인도한 축제였다. 본지는 양궁경기에서 한국과의 결승전을 통해 멕시코 최초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쥔 멕시코 양궁코치 이웅장로(멕시코 아를다운교회)를 만났다. 금반 올림픽을 통해 검색순위 1위를 장식하며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박수를 받은 이웅장로와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오직 기도와 함께 준비한 런던올림픽

“제 계획과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가셨습니다.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웅장로는 아직도 그날의 감동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입을 열었다.

런던으로 출발하기 전 멕시코 매스컴과의 인터뷰에서 메달 2-3개를 꼭 걸고 올 것이라고 기도하게 발표했다. 4년 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메달을 기대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이웅장로와 그의 아내 방권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권사는 지난 4년간을 되돌아보며 “올림픽을 놓고 기도의 용사 100명을 달라고 기도하며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요.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니 제가 모으고 있던 라구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아주시도록 맡기고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멕시코와 한국 미국을 총동원하여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셨고 4년 동안 하루 한 기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고 말하며 ‘오직 기도뿐’이었음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준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전주교가 국교인 멕시코, 그곳 양궁선수들과 훈련에 임할 때마다 이웅장로는 기도로 시작했다. 그들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정기적으로 현지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초빙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매 경기에 나갈 때마다 이웅장로는 선수들을 안고 기도하며 출전하게 했다. 그러기에 선수들도 이번 올림픽 전을 치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었다.

멕시코 최초 양궁 메달...하나님의 은혜

이웅장로와 방권사가 런던올림픽을 놓고 기도하며 혼신을 다해 훈련에 임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다. 바로 메달을 주실 것



멕시코 양궁감독 이웅장로 부부

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최소 2-3개를 주실 것이라는... 이웅장로는 내심 남자 단체전과 남자 개인전에 큰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었다. 사실 남자 양궁선수들의 실력은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시작되면서부터 방권사 몫은 호텔 방에 머물며 기도하는 것이었

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 기도의 줄을 늦출 수 없었지요.”

이제 남은 경기는 여자 개인전뿐이었다. 하나님은 개인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까지 간섭하셔서 선수들의 위치를 인도하셨고 개인전을 통해 2개의 메달을 걸어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셨다.

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사람이 멕시코에 메달을 가져다주었다는 이미지도 심어주었지요”라며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중남미 스포츠선교사로 살고파

이웅장로의 양궁역사는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등학교 4-5학년 시절 공원에 가면 활을 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좋고 부러워 할아버지를 따라 활을 쏘보곤 했는데 중학교 입학 즈음 한국에 양궁이 보급됐다. 그때부터 중학생 이웅은 양궁을 시작했고 선수로, 코치로 한국 양궁계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된다. 그러다 1997년 멕시코 양궁감독으로 초청돼 멕시코로 진출한 이웅장로는 그곳 양궁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훈련에 임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양궁의 기술을 연마시킨 것뿐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 되도록 혼신을 다했다. 긴 세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받고 교회를 섬기기도 한다.

“이번 런던경기를 마지막으로 멕시코

## 기도 동역자 찾으며 런던 올림픽 준비

## 남은 생애 중남미 스포츠 선교사로 사역에 올인



런던 올림픽 양궁대회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금, 은 메달을 걸고 환호하고 있다. 우측 첫번째가 이웅감독

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신 있게 생각했던 남자단체전, 여자단체전, 남자개인전이 줄이어 쓴 맛을 봐야 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실망해야 했다. 아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웅장로와 방권사에게는 아직 그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며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염려가 엄습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행여나 메달을 얻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

막을까봐 걱정했는데, 중남미 작은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양궁을 지도해주며 스포츠선교사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축복해주셨기에 이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멕시코와의 결별을 계획했는데 멕시코 정부에서 다음 올림픽까지 단 해달라고 요청해오고 있어 지금 고민하며 기도 중입니다. 사실 스포츠 선교사로 섬김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라며 “아직 모든 것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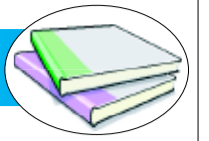
그는 양궁 외에도 멕시코에 개인 사업을 갖고 있어 CEO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 장로는 교회를 생각하면 한없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다. 교회도 많이 비워야 했고 장로로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장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먼저 자신을 훈련하고 기도하는 교회, 사랑 있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이웅장로는 아내 방영옥 권사와 아들, 셋, 이레 세 아들이 있다.

이메일: arcokr@hotmail.com (이성자 기자)

### 새책 소개



##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자 유기성 목사



유기성목사(선한목자교회)의 설교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출판사 규장각)가 출간됐다.

유 목사는 ‘예수영접, 예수동행, 예수사랑’이라는 복음의 잣대를 다시금 들이대며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지, 아는 것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리이자 지식일 뿐이므로 주님을 깊이 만나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본사에서 강조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출간 동기를 설명했다.

지난 3월 감리교 목사인 자신이 장로회신학대학 신양사경회에 초청을 받았다. 사경

## ‘예수영접, 예수동행, 예수사랑’ 복음 잣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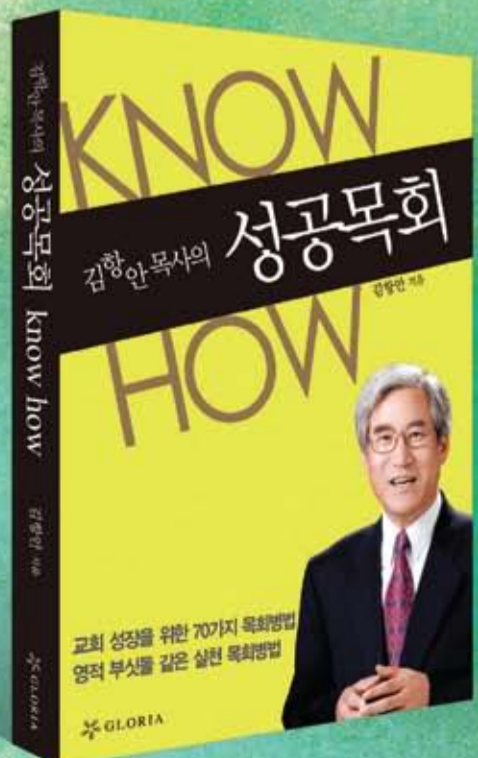
회 감사 요청을 받았을 때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사경회의 중요성을 인지해 흔쾌히 단에 섰다. 그때 전한 7편의 설교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신학도들에게 다시 한 번 복음의 핵심을 들려주었다. 이 말씀을 들은 학생들이 설교 내용을 책으로 출간해 달라고 요청함으로 한편의 책으로 묶였다고.

본서는 파트 1. 예수님과 나와 하나(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파트 2. 예수님과 동행(예수님만 구하십니까? 예수님 한분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십니까?) 파트 3. 예수님과 사랑(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로 나누어 구성됐다. 부록으로 7편의 설교를 담은 CD를 첨부했다.

유기성 목사는 부산제일교회, 안산광림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 선한목자교회 담임, 코스타 국제이사도 활동하고 있고 저서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제자훈련교재 ‘예수님의 사랑’”,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등이 있다.

구입처: 미주 각 기독교서점 (이성자 기자)

##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병법



김항안 지음  
384쪽  
신국판  
정가 12,000원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식들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병법!!!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해 기독교 영성 안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분 우수도서 선정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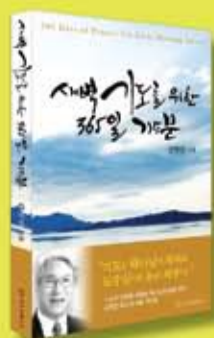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비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김항안 지음  
390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토대회”가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김항안 목사  
철학 박사, 선교학 박사

목포 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핀엔 대학, 배럴린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총회 신학, 서울 신학대 동대학원 강사,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벌 선교회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천”, “절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감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능력과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은사와 교회성장”, “대표기도원도”,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원금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를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랑교육법”, “달음”, “1997~2012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